



# 기독일보



2024년 5월 9일 목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39호

## “한국교회, 결혼과 가정의 가치 강조해야”

### 목회데이터연구소, ‘결혼 거부감’ 나타난 조사 결과 소개하며 주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져 ‘인구 절벽’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거부감까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최근 여성가족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결혼 및 가족 관련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목데연에 따르면 최근 여러 기관의 조사에서 가장 우려할 만한 결과는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다. 25~49세 미혼 국민 대상으로 묻은 ‘결혼 의향에 대해 39%가 결혼 의향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응답했

다. 특히 미혼 여성의 ‘결혼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비율은 52%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미혼 남성(28%)보다 크게 높았다.

목데연은 “이는 경제적 부담, 개인의 자유와 경력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으로 보인다”며 “20~44세 기임기 국민 대상의 조사에서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에 73%가 동의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했다.

또한 ‘결혼은 구시대적인 제도’이다가 29%, ‘결혼생활에 관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가 28%의 동의를 얻어, 적지 않은 국민이 결혼제도의 당위성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고 목데연은 전했다.

목데연은 한국교회를 향해 “결혼과 가

정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며 “교회는 설교와 교육을 통해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대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결혼과 가정이 개인의 삶과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변화하는 세대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개인주의, 평등주의 성향은 가족의 형태와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목데연에 “이번 조사 결과 중 자녀에 대한 인식에서는 ‘결혼생활이 불행하면 자녀가 있어야 이혼할 수 있다’가 대부분(84%)의 동의를 얻었으며,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도 10명 중 7명(73%)

이 동의해, 개인의 자유가 결혼제도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이해해 건강한 가정은 부모 자녀 간 존중과 자유로운 소통 안에서 더 굳건하게 형성될 수 있음을 알고 포용적이고 관련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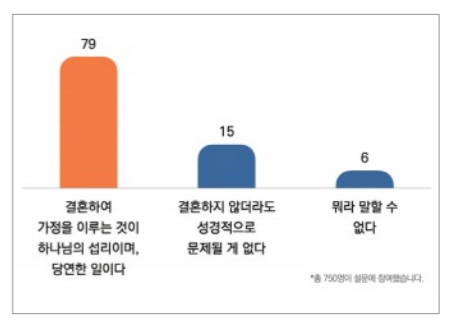
아울러 “한국의 가족과 결혼 가치관의 변화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전”이라며 “교회는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영향력을 제고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혼... 목회자 10명 중 2명, 가능 혹은 판단 유보

한편 목회자 10명 중 2명(20%)이 ‘비혼’에 대해 가능 혹은 판단 유보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목데연은 목회자 75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결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79%)의 목회자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당연한 일’이라고, 15%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6%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목데연은 “10명 중 2명(20%)은 ‘비혼도 가능 혹은 판단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비혼주의가 팽배한 사회 흐름 속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속 하나님의



“비혼주의와 비혼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혼’에 대해 목사님의 생각에 더 가까운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비율 ©목회데이터연구소

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목사님들의 의견이 강하게 드러나는 결과였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 교회 강단에 선 ‘소통 강사’ 김창욱, 그가 말하는 ‘관계’의 비밀

### 8일 오론교회 새생명축제로서 ‘공감과 소통’ 주제로 강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말, 언어는 창조의 시작이자 우리 관계의 시작입니다.”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욱 교수(김창욱아카데미 대표)는 8일 서울 강동구 오론교회(담임 주경훈 목사) 강단에 올라 이렇게 강조했다. 기독교인인 그는 오론교회의 ‘2024 새생명축제 Welcome

Home’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김 대표는 사람과 사람, 특히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 보다 더 정확하게는 ‘예쁜 말’ 혹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우리가 서로에게 공감할 때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평소 이런 언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공감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는 흔히 돈이 많은 이들에게 ‘잘산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돈이 많은 이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은 ‘부자’라며 ‘잘산다’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리가 좋다는 뜻이다. 돈이 없어도 사리가 좋은 부부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사람들이 결혼과 같은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자주 상대방의 외모 같은 것을 보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우리의 관계를 오래 지속시켜주는 것은 ‘공감’이고, 이를 토대로 한 ‘언어’라고 그는 강조했다. 가령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을 때, 아내가 같이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는 것, 그리고 남편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 편을 들어 주며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의 언어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오론교회에서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김창욱 교수 ©김진영 기자



오론교회 ‘2024 새생명축제 Welcome Home’에서 강연하고 있는 김창욱 교수 ©김진영 기자

이것이 변하려면 서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를 몰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마치 혈투병을 앓는 여인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흘러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강연과 같은 것들을 자주 듣다 보면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점점 바뀌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우리가 상대와 공감하고 소통하려면 일단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마음에 여유를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그런 장소에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통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데 이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조금은 풀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저 그것에 좌절하기보다 그 고난을 우리에게 찾아온 귀한 손님처럼 대한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김창욱 교수는 원래 예정된 강연 시간인 1시간을 넘겨 약 1시간 30분 동안 그 특유의 유머를 섞어가며 이날 오론교회를 찾은 이들을 ‘집중’하게 했다. 강연 시간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 오랜 경험에서 우리나라 못한 말로 청중들을 위로하며 격려했다. 강연 주제 그대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이었다.

한편, 오론교회는 5월 한달 간 ‘2024 새생명축제 Welcome Home’을 진행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로 초청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 기간 매주 수요일 오전예배에는 이날 김창욱 교수를 시작으로 송주현 목사(우리는교회 담임, 5.15), 이광기 집사(텔런트, 5.22)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26일 주일에는 오론교회 담임 주경훈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김창욱 교수의 강연이 끝나자 강단에 오른 오론교회 원로 김은호 목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관계라고 말한다”며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와 목자,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그처럼 행복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그 방법은 간단하다.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주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 UMC 아프리카, 친동생에 결정 ‘방연자실’ >> 2면
- “챗GPT, 창조적 목회 활용방안 모색해야” >> 3면
- 조성환 목사 “항상은 해 가운데 거하는 삶” >> 22면



UPPERHOUSE 롯데건설

### “자연이 결국 최고의 럭셔리다”

강남권에서 만나는 5만 6천여평의 대규모 블록형 타운하우스 단지

대규모 호텔급 커뮤니티 특화시설 제공 (스파, 사우나, 레스토랑 등)

1층 단독 정원 사용, 3층 단독 루프탑 사용    국내 최고의 조경, 건축, 설계회사 참여

방문 신청 1666-1691

※상기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UMC 아프리카 대의원들, 친동성애 결정에 '망연자실'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회에 참석한 아프리카 대표단이 동성결혼 주례와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한 교단 결정을 비판했다.

지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UMC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동성결혼 주례 및 성소수자(LGBT) 옹호 단체에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일 최고 입법 기관인 총회는 523 대 161의 표결로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 교리와 양립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장정에서 삭제했다. 이 문구는 1972년에 추가되었으며, 이번 표결로 52년 만에 폐기되었다.

보수 신학 매체인 '굿뉴스매거진'의 발행인이자 총회 참석자인 립 렌프로는 2

일 일부 아프리카 대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CP에 전달했다.

성명서는 "우리는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했으며, 기쁨으로 섬겼다. 그러나 이제 제 우리의 마음은 괴로움에 차 있다"라며 "연합감리교회는 결혼의 정의를 바꾸었다. 이제 결혼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방식과 다르게 정의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을 뒤바꾸었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 대의원들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제 결혼과 성 윤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교단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미래에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아프리카 대의원 그룹이 2024년 5월 2일 목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동성결혼과 비독신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한 교단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립 렌프로

관한 중대한 결정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돌아간다"라며 교단 탈퇴를 예고했다. 성명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가득 안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성도들에게 전한 믿음을 위해 싸우기로 결단하며 집으로 들

어간다"며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로 돌아간다. 그곳은 불신자들이 믿음으로 나아오고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제자들이 길러지고 있다"고 했다.

대의원들은 또한 UMC가 70명의 아프리카 대표단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 제재로 초대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절차가 더욱 편향되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들은 (아프리카) 대의원들의 약 25%에 해당한다. 10개월 전부터 우리는 편지와 이메일, 전화를 통해 총회 위원회와 일부 감독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렸다"라며 "이러한 연락의 대다수는 단 한 번의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라이베리아 연회 대표 감

독 제리 P. 쿨러(Jerry P. Kulah) 목사, 동공고 연회 대표 프로스페러스 툰다(Prosperous Tunda), 나이지리아 연회 대표 단주마 주디(Danjuma Judi) 목사, 시에라리온 연회 대표 예야부 카마라(Yeabu Kamara) 박사, 짐바브웨 연회 대표 킨포드 지부티(Ginford Dzimati)가 서명했다.

UMC는 1일 총회에서 대의원 692명의 압도적 찬성과 51명의 반대로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규정을 삭제하기로 가결했다. 단, 목회자와 개교회가 동성결혼식을 주례하거나 주회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경적 성 윤리를 지지하는 보수적 교회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7500개 이상이 UMC를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김진진 기자

## '동성애자 안수 허용' UMC, '한반도 평화협정'도 촉구

지난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정의, 통일에 관한 결의안' 채택

동성애자 목사안수 허용 등 친동성애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의, 통일에 관한 결의안'이 686대 36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교단 소식을 전하는 연합감리교뉴스

(UM News)는 현지 시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치러진 총회의 '5대 뉴스'를 뽑은 6일자 보도에서 이 같은 내용을 3위로 선정했다. 1위는 성소수자 관련 결정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UMC 한인총회 평화위원회와 총회세계선교부, 및 총회사회부가 오랜 기간 연대해 준비했고, 사회부가 총회에 제출한 것이다.

UMC 한인총회 평화위원회는 전신인 통일위원회가 1988년 한반도 평화 관련 결의안을 제출한 이래, 총회 때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목소리를 전해

왔다고 한다. 특히 이번 결의안의 모체가 된 2016년 총회에서 채택된 '평화, 정의, 화해의 한국(Korea: Peace, Justice, and Reunification)' 결의안부터는 휴전협정을 넘어 종전협정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발전해 왔다고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 정의, 통일에 관한 결의안'은 "식민지 확장과 군사적 패권을 노린 외세에 의한 한국 민족의 오랜 고통을 적절히 인지하지 못한 것을 애도한다"라고 밝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몇 가지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연합감리교뉴스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아래와 같은 결의안 내용을 인용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감리교회와 에큐메니컬 동역자들에게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과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평화조



연합감리교회(UMC) 총회가 진행되던 모습 ©UM News

약으로 대체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며, 국제사회가 평화조약을 위한 협상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감리교회와 에큐메니컬 동역자들에게 편지 쓰기와 청원 활동을 통한 국제 제재 해제를 기도하며, 옹호 활동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모든 감리교회와 에큐메니컬 동역자들이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매년 광복절인 8월 15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

을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키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정전(휴전)협정을 평화조약 내지 종전협정으로 대체할 경우 오히려 한반도 불안에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로 이어져 북한의 도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다. 김진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 절차 진행 중"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장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에 이어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진행 중이다. 조례 폐지 여부는 오는 8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됐고, 현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청구는 광주시민 8,034명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할 수 있는데, 현재 청구인 명부에는 1만366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청구인 명부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오는 12일까지 유효



제308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광주시의회

성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 절차가 완료되면 시의회 의장 명의로 해당 조례를 발의해 상임위원회인 시 교육문화위원회에 심의를 맡기는 단계를 진행한다. 이 절차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

로 예상된다. 조례 폐지 여부는 오는 8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의 통제가 제한되고 학업 성취가 떨어지고 있다"며 "성직지향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해 학생들의 성장체성 혼란을 야기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곳에서 도입됐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면서 충남도는 4월 23일, 서울시는 4월 26일 해당 조례를 폐지했다. 노형구 기자

## '서울광장 불허' 서울퀴어퍼레이드, 6월 1일 을지로·종각 일대서

같은 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반대 집회

다음 달 1일 서울 도심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린다. 이번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올해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서울광장 이용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소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퀴어퍼레이드를 내달 1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소는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주변 남대문로와 종로구 종각역 인근 우정국로 일대라고 한다. 구체적인 경로는 경찰과 협의 중이다.

올해 퀴어축제는 '예스, 퀴어!(YES QUEER!)'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리며,

오는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이어진다. 한편, 2024 기록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대회장 오정호 목사)는 오는 6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맞서 서울시의회 앞에서 제10회 '기록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연다.

이들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희롱은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 악한 죄악들이 모든 사회 영역에 확산시켜, 미래세대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오염시키고 파멸시키고,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 사회, 국가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대회는 대한민국에서 이 악한 성희롱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강력하고도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매년 서울광장 등에서 개최되는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발표 기자회견 ©뉴시스

동성애옹호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인 퀴어행사를 막아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2024년에는 서울퀴어 반대 통합국민대회에 20만 이상의 성도들과 국민들이 집결하여 성희롱과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려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사회 국가의 선량한 성윤리를 반드시 지켜내고 건강한 국가 사회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에너지 LX 인터내셔널 | 글로벌 스마트 물류 LX 판토스 |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LX 하우스 | 신소재 개발 LX MMA | 차세대 반도체 LX 세미콘 | 우리 솔루션 LX 글라스

**LX**  
LINK FOR NEXT

# “챗GPT, 냉철한 평가 뒤 창조적 목회 활용방안 모색해야”

텍스트프리칭연구소, ‘챗GPT와 그리스도 중심 설교’ 주제 세미나

텍스트프리칭연구소(김대혁박현신 공동대표)가 6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소재 광명중앙교회(서보민 목사)에서 ‘챗GPT와 그리스도 중심 설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현신 교수(총신대신대원, 실천신학설교학)가 ‘챗GPT 이해와 설교’ ▲김대혁 교수(총신대신대원, 설교학)가 ‘챗GPT 활용 시대 속에서 설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제안

먼저, 박현신 교수는 “챗GPT의 거대한 도전 앞에 설교자들은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목회자들은 챗GPT 활용을 추구하기 이전에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챗GPT에 대한 한계 및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챗GPT에 대한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개혁주의 실천신학자와 설교학자들의 비평적 견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하면서 지나치게 부정적 관점과 낙관적인 관점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개혁주의 신학과 윤리학 관점에서 챗GPT에 대한 냉철한 검토와 평가를 거친 다음, 교회와 목회의 도구로서 창조적 활용방안을 전문가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음세대와 주일학교 설교를 위한 챗GPT 활용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적 비평과 대안이 시급하다”며 “아차코 챗GPT를 막을 수 없고, 찬반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 속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편으로는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위험한 논리가 배태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영혼이 없는 AI와 챗GPT가 성경적 목회 영역과 영적인 사역예배와 설교, 기도, 상담, 전도, 교육과 훈련 등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AI 목회자와 챗GPT 설교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아가 개혁주의 경건(영성)과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와 예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챗GPT를 활용한 설교 준비 이전에, 개혁주의 실천신학과 설교학의 본질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며 “또한 개혁주의 윤리학에 근거하여, 챗GPT에 의존한 설교 표절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하며, 가능한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

요하다. 설교자의 신뢰성과 교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챗GPT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및 윤리적인 기준, 청중들(성도들의 인식과 기독교 윤리적 기준을 함께 파악하면서 매우 신중하고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개혁주의 설교의 철학과 성령의 주권적 역사를 철저히 추구하면서, 목회자는 성경 저자가 의도한 의미와 적용을 발견하기 위한 설교 주해와, 신학화, 적실성(정중분석과 적용), 전달 과정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제 위에서 챗GPT를 활용한 브레인스토밍, 대화를 통한 주제선정, 자료수집, 원문참조, 영문 번역과 교정, 인문학 자료와 정보 요약, 배경연구, 메타버스와 연결된 활용(예: 성경인물 내러티브 설교 등) 등을 비평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AI 시대 교회의 대응방안에 대한 고단적 연구위원회와 실천신학자들의 통합 연구와 공저가 필요하다”며 “개혁주의 설교학 관점에서 챗GPT 설교 방향과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실천적 계획 수립과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국 교회와 사회 전반과 국가에 개혁주의 입장과 견해와 가이드라인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챗GPT의 도전과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개혁주의 설교 회복을 위한 5R 전략으로 ①뉴 노멀설교가 아닌 ‘리뉴 노멀설교(Renew normal preaching) △개혁주의 부흥 설교(Revival Preaching) △개혁주의 ‘경험적 설교(Reformed Experiential Preaching) △언약 중심적 다양한 영역의 적용(Relevant Preaching) △교회건강 회복을 위한 다양한 강해설교전략(Preaching for Revitalization)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영적 리셋을 통해 영적 판도를 바꾸는 교회와 크리스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 ◆챗GPT 시대 속에서 설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김대혁 교수는 “챗GPT가 지닌 잠재력이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지닐 수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인간이 활용하는 도구에 관해 무턱대고 반발심을 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너무 큰 우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나올 과학의 발전과 혁신적인 도구의 도래는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킬 뿐”이라며 “목회와 설교에 있어서 본질을 지향하는 방향 속에서 과학의 도구로 인식하고 하나님 나



텍스트프리칭연구소 세미나가 6일 ‘챗GPT와 그리스도 중심 설교’ 주제로 열렸다. ©텍스트프리칭연구소



텍스트프리칭연구소 세미나 진행 사진. ©텍스트프리칭연구소

라를 이루어 가도록 책임감 있고 도덕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 ◆인식론적 관점에서 제안

김 교수는 “먼저, 설교의 정의와 목적, 설교자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 회복이 우선”이라며 “둘째로 오늘날 설교자들은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셋째로 오늘날 우리는 소비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대안적 설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넷째로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오늘날 문화의 영향 속에서 한국교회가 빠질 수 있는 ‘신상중후군’에 대한 자각이 절실히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 “다섯째로 본문에도 충실하고 신학적으로 건전한 설교와 설교에 관련된 자료를 축적하고 제공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며 “여섯째로 한국교회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 ◆실천적 관점에서 제안

김 교수는 설교 실천적 관점에서 제안하기를 “먼저, 설교 준비와 설교 후에 챗GPT의 활용은 권장해 볼 만하다”며 “설교 전에 다양한 청중의 필요와 관련된 자료 정리, 특정 주제와 관련된 개괄적 정보 지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성경 본문과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설교자는 주해의 과정에서 본문과 본문 앞의 세계에 충실하되, 다양한 정보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본

문의 내용을 가지고 본문 앞에 살아가는 정황과 청중 읽기가 더욱 필요하다”며 “셋째로 설교를 위한 신학적 사고 과정(원리화와 맥락화)에서 성경 전체의 정경적 맥락을 중요시해야 한다. 또한 설교자가 지닌 신학적 틀로 다양한 정보를 필터링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적 읽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넷째로 설교와 과정에서 청중에 대한 공감과 함께 세속화의 흐름에 저항하는 도전과 청중의 연약함에 공감하는 진정성 어린 적용이 살아있는 설교가 있어야 한다”며 “청중이 없는 지식은 허공을 향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설교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중을 향한다”고 했다.

그는 “인식론적, 실천적 제안은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반의 챗GPT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설교자는 딥리딩(Deep Reading)과 딥프리칭(Deep Preaching)을 실천해야 한다”며 “딥리딩(Deep Learning)이 주는 다량의 정보를 ‘skimming’, ‘scanning’, ‘scrolling’하며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시대 설교자에게는 본문 앞에 오래 머무는 묵상과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더욱 깊이 품는 신학적 성찰이 있고, 청중의 경험과 감정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딥리딩(Deep Reading)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딥리딩의 기반 속에서 단순히 성경 본문과 관련된 신학적 데이터를 대상인지 차원에서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경적 맥락과 오늘날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를 포함하여 이해하는 메타인지 차원에서 통합해야 한다”며 “이 때 설교자는 하나님의 구속과 언약적 맥

락 속에서 복음과 연관되도록 하는 신학적 확신과 부합되는 설교, 즉 신학적 행위로서의 설교가 본질을 담아 복음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김대혁 교수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설교 토크쇼’ ▲박현신 교수가 ‘그리스도 중심 복음설교: Timothy Keller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김대혁 교수는 “오늘날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복음 메시지의 재발견과 재활성을 위해서 설교자는 단순히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로 만족할 수 없다. 복음을 설교하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과 실제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오가며 설교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구현되고 실행되도록 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오늘날 청중의 신념과 사상과 정서와 감정과 삶의 형성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우리 설교 메시지의 점검과 갱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설교에 복음을 주체적으로만 제시하는 차원이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차원으로는 포스트모던의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역부족”이라며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으로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그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본문의 권위를 높이는 설교여야 하며, 본문의 요

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연결되는 기독교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신학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설교여야 하며, 동시에 이 시대의 정신을 꿰뚫고 여전히 복음의 적실성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복음 공동체를 형성하는 설교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그 시작은 우리의 신앙고백에 걸맞게 설교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싶은 간절한 열망에서 시작된다”며 “이 시대가 복음을 길들이는 것에 저항하며, 복음이 우리 설교자와 교회와 급변하는 이 시대를 길들이기를 갈망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 ◆Keller의 비의도적 설교 패러다임의 특징

이어서 발제한 박현신 교수는 “Keller의 비의도적 설교 패러다임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설교를 위한 해석학적 패러다임은 설교자의 텍스트(1단계)에서 원저자의 메시지(2단계), 그런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사적 주제(3단계)를 반드시 거친 다음 현대 청중들을 향한 적용(4 단계: 어떻게 포스트모던 청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 패러다임의 특징 중 하나는 그리스도를 강조한 다음,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포스트모던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강해설교를 버리고 이야기식 설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Keller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중심적 강해설교를 더욱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 전세계 럭셔리 휴양 컬렉션 오직,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아너스 회원에게만

훽날리는 바람과 수많은 별이 수놓는 대자연의 압도감, 당신에게만 허락된 그곳에서 가장 경이로운 휴양을 선사합니다.

Sanctuary for the senses  
BANYAN TREE  
HAERUNDAE BUSAN

| 아너스 회원 글로벌 혜택 |  
아너스 회원이 되어 전 세계 32개국 109개 호텔&리조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휴양 컬렉션을 누리십시오.

아너스 회원 모집 중 1899.3318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현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얀트리 사우디아라비아 알울라

# 자살과 기독교인,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로빈 슈마허(Robin Schumacher) 박사(사진)가 '자살과 기독교인'에 대한 견해를 크리스천포스트(CP)에 게재했다.



슈마허는 자살이 "기독교에서 금기시 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이야기는 낮은 목소리와 긴장된 어조로 이루어지며, 특히 누군가가 가족이 자살을 경험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라며 "자살한 기독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때와 장소에서 예상대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야기를 마치면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야기한 사람들과 주제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을 보면,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이 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은 삶을 미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전 2:17). 엘리야는 우울하고 두려워서 죽기를 바랐다(왕상 19:4). 요나는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서 죽기를 원했다(요나 4:8)"라며 "바울은 너무 압도되어 '형제들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함에 겹겹으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단념했다'고 시인했다(고후 1:8)"고 덧붙였다.

또한 "성경에서 두드러진 두 명의 자살 사례는 사울(삼상 31:4)과 물론 유다(마 27:5)이다. 두 사람 모두 믿는 자가 아니었다. 특히 유다는 사탄이 거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요 10:10)"라며 "이 맥락에서 벗어나는 삼손을 제외하면, 성경에는 믿는 자가 자살하는 사례가 없다"고 했다.

슈마허는 기독교인의 자살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시편 31편 15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나'라고 인정하는 것(시편 31:15)"이라며 "다음으로 성경은 삶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로 힘들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존 파이프(John Piper) 목사의 말을 인용하여 "기독교인이 너무 우울하고, 일시적으로 복음의 소망을 잃고서 절망의 순간에 자살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맥아더는 내가 믿는 올바른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자살은 살인에 상응하는 중대한 죄이지만(출 20:13; 21:23),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분명히 말한다(골 2:13-14). 바울은 로마서 8장 38-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

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렉 로리(Greg Laurie)는 자리드 윌슨(Jarrid Wilson)을 위한 추도 연설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이 죽기 직전에 한 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행하신 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다.

슈마허는 "이로써 우리는 자살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님을 이해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 싱클레어 퍼거슨(Sinclair Ferguson)의 말을 들어보라"라며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다. 왜냐하

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께 반응하거나, 본질상 그분을 악마처럼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매우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카뮈(Camus)와 톨스토이(Tolstoy)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우리에게 의미와 희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 두 가지(행 24:15; 롬 5:2-5, 8:24; 고후 1:10)와 삶의 목적(눅 9:23-25, 롬 8:28; 골 1:29)이 있다고 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항상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신명기 30:19)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 “유신진화론? 진화로 창조 설명하는 것 불가능”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신학이 과학에 의하여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진화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

평을 7일 발표했다. 최근 교계에서 논란이 된 소위 '유신진화론'에 대한 것이다.

언론회는 "19세기 후반 찰스 다윈에 의하여 만들어진 '진화론'은 엄밀히 말해서 과학도 아니면서, 사람들을 '과학주의' 상

상'에 갇히게 만들었다"며 "진화론(進化論)은 생물의 다양성이나 적응성이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변화되거나 전개되어 온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는데, 이것이 자연과학이나 심지어 인문과학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러나 철저한 실험과 검증, 이를 실증하는

역사적 증거들이 제대로 없는 가운데, 이미 정해진 추론(推論)과 상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진화론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 최근에 어떤 진화론에 다 기독교의 창조를 연계시킨 '유신진화론'(Theistic Evolution)이 대두(大頭)되고 있다"며 "이는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에 자연계의 생명체에게 진화 능력을 부여해서 (나중에) 현재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는 주장이다. 이는 창조와 진화가 충돌하지 않도록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화도 창조도 아닌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야 그 자체로 원래 과학이 아니면서도,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여 '과학의 틀에 가두버린'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증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그러면 최근에 모 신학대학에서 어느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가르쳤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며 "성경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과학은 증명되지 못한 것을 시험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진화로 창조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전 6:12)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문적 자유와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자신이 믿는 바 신앙의 입장에서 주님의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와 성직 후보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문의 | 전국 대리점 및 올리브영 매장

※ 사용 전후 피부 변화 측정 방법: 2023.01.25~2023.03.30 (사용 전) 2023.03.31 (사용 후) (각 측정 방법 연구용)

## 장신대, 특별새벽경건회 성료

지난 4월 30일, 5월 2일~3일까지 3일간 진행



특별새벽경건회 진행 사진. ©장신대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김운용, 이하 장신대)가 지난 4월 30일, 5월 2일~3일(3일간)까지 어두운 밤, 깨어있는 그대가 희망이다(겔 1:1-3)라는 주제로 특별새벽경건회를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행사는 김운용 총장의 인도로 진행됐다.

이날 김운용 총장은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 열음호수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며 살아가는 장신공동체를 통해 다시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별새벽경건회를 위해 학부 신대원 연

합 찬양팀이 구성되었고, 이들은 2주간 매일 연습과 기도를 통해 헌신적으로 준비했다. 경건회 기간 동안에는 전체 학생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재정비하고 소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마지막 날에는 송용원 생활관장이 진행한 감사의 시간에서 김운용 총장

을 위해 '야곱의 축복'이 전체 학생들이 불렀고, 사생대표가 꽃다발을 전달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행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문성교회(남영우 목사)의 후원으로 약 550여 명의 학생들에게 샌드위치와 음료가 제공되었으며, 김운용 총장과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을 격려했다. 장요한 기자

## (재)한국기독교학술원, 제62회 학술공개세미나 연다

오는 2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재)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손인웅)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이론에 대한 대토론'이라는 주제로 제62회 학술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손인웅 원장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이론은 가톨릭의 로핀크(Lohfink), 그레스하케(Greshake), 크레머(Kremer)같은 유명한 학자들이 주장하면서 세계적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며 "최근에 몰트만(Moltmann)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이론이 성서적이고,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개신교회에서도 중요한 신학적 토론 대상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세계 교회는 죽음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신자의 영혼

은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다. 천국에 있는 신자의 영혼은 육체가 없는 영혼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론하고 있다"며 "성서의 인간 이해는 육체가 없는 인간을 상상하고 있지 않고, 천국에 존재하는 성도들도 하늘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지니고 있는데, 이 육체는 부활체일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죽음에서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일까? 그 영혼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천국에 있는 것일까? 후자가 옳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소망은 더 강력적이고 기쁜 것"이라며 "이 주제에 대한 한국 최고의 연구가인 최태영 박사(영남신대 명예교수)와 이신건 박사(서울신대 명예교수)의 강연과 개혁신학의 관점

에서 이에 대한 이승구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의 논찬과 비평은 이 주제에 대한 핵심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할 것이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바른 신학적 답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사는 1부 경건회와 2부 공개 세미나로 진행된다. 1부 경건회는 손인웅 원장의 인도로, 김만준 목사(덕수교회)의 설교, 이승택 이사장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된다.

2부 공개 세미나는 ▲최태영 박사(교회신학연구소 소장, 온신학회 회장, 영남신대 명예교수)가 '그리스도인은 언제 부활하는가? -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교리의 성경적 근거' ▲이신건 박사(생명신학연구소, 성결신학연구소 소장)가 '부활신앙의 기원과 부활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하며, 이승구 박사(합신대 석좌교수)가 논찬한다. 장요한 기자

# ‘나는 신이다’ 조성호 PD “JMS 신도 경찰 20여 명 리스트 입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씨의 성범죄 증거 인멸에 현직 경찰관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소 20명 이상의 수사·형사 담당 경찰이 JMS 조직을 수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연출을 맡은 조성호 MBC PD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나는 신이다” 제작자 취재 과정에서 JMS 내부 스파이 조직 출신 탈퇴자를 만나게 됐다”며 “증언

자 가운데 나와 메이플을 미행했던 사람도 있었다. 이들이 내게 외장하드를 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 JMS 신도 경찰 리스트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리스트엔 20여 명의 경찰들이 적혀 있는데, 이번에 (현직 경찰관이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문제가 된 계급은 경감”이라며 “경감 이상급의 계급도 있었다. (외장하드에 담긴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이 조직의 한 스파이는 JMS 수사를

맡은 경찰서장에게 사적인 청탁을 한 편지 내용이 담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이버 교주를 수호했다면 국기 문란의 사태”라며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한 경찰관은 현직 경찰의 입장에서 JMS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건을 만들었고, 경찰의 핸드폰 포렌식 과정을 설명하면서 핸드폰 압수수색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말했다고 한다. 그 조인 덕분에 스파

이 조직 관계자들은 핸드폰을 모두 버렸고 이로 인해 수사가 늦춰졌다고 판결문에 분명히 적혀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할지 지시를 하거나 방조를 한 경찰 주수호는 본명이 아니다. 정명석으로부터 하달받은 이름”이라고 했다.

조 PD는 사회자의 ‘경찰이 조사를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취재 차원에서 서조경찰사에 찾아갔는데 같은 팀 경찰들이 취재를 방해했다. 우리가 시선을 돌

리는 동안 나머지 경찰들이 주수호를 빠져나가도록 돕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며 “서조경찰사에 관련 질의 요청 결과, 어떤 비위가 어떤 경찰에 있었는지 경찰이 알게 됐는데도 ‘우리는 어떤 책임도 없다고만 말했다’고 했다.

사회자는 “나는 신이다” 제작진이 입수한 JMS 신도인 경찰 리스트 ‘사사부’ 문건을 경찰이 요청해 전면적 수사에 돌입했는가, 아니면 주수호 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하는가”라고 묻자 조 PD는 “그

렇다”고 했다.

조 PD는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유출된 적도 있었는데, 경찰은 이에 연루됐다고 의심된 사람에 대한 내사 요청을 거절했고, 그저 아무 연관이 없다고만 한다”며 “사사부” 리스트는 조성호 PD만 갖고 있고, 경찰이 이에 관한 수사요청을 위해 자료를 달라는 것도 없었다. 주수호 경찰에 대한 감사결과를 묻자, 서울경찰청은 정계발령이 나온다고 해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만 했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 용인 기쁨의교회, 5월 맞아 가정 회복 프로그램 진행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 회복을 위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쁨의교회는 매년 5월 말씀 선포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가정 회복에 앞장서 왔다.

기쁨의교회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다. 공연 ‘열려라! 바이블세상’은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직접 자체 제작한 공연이다. 이 공연으로 아이들은 재미와 감동을 받았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또 연극과 함께 퀴즈, 에어바운스, 페이스페인팅, 재미있는 놀이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날 행사엔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기쁨의교회는 “특히 지역에 민지 않는 친구들, 소외된 아이들을 초청하여 신나는 공연과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5월 5일부터 6일 양일간 믿음의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12기 결혼예비학교가 열렸다. 올해는 총 39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결혼의 원리,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배우며 결혼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와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인 결혼관을

확립하고, 결혼 전 건전한 자아상을 확립하기 위해 결혼예비학교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비혼주의가 만연한 세상적 가치관을 거슬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청년들이 참여해 실제 열매로 해마다 믿음의 결혼 커플들을 배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18기를 맞이한 가정사역세미나는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31가정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가정사역세미나는 하나님에 내신 가정과 결혼, 부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성경적 관점에서 배우고 실습하는 코스이다. 교회는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장

조질서를 회복하고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올해 창립 28주년을 맞이한 기쁨의교회는 매년 5월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정의 달에 맞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의 사랑과 부모-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며,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존중하는 가정 회복 중심의 사역을 펼치고 있다.

정의호 담임목사는 “하나님이 내신 결혼과 가정의 원리로 돌아갈 때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될 수 있다. 파괴되어 가는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시



‘열려라! 바이블세상’ 공연 장면 ©용인 기쁨의교회

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정의 제도와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 아프리카 섬나라 상투메프린시페에 성경 기증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순권 목사)가 창조교회 이상경 장로와 김연옥 권사 가정의 후원으로 상투메프린시페에 포르투갈어 성경 95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최근 가졌다.

공회에 따르면 이상경 장로 가정은 2년째 해외 성경 보내기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2023년 니제르에 이어 올해 상투메프린시페까지 총 3,363권의 성경을 후원했다고 한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의 부흥을 주셔서 오늘 상투메프린시페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미지립성서공회인 상투메프린시페성서공회를 대신해 루소폰(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지역) 성서공회를 지원하는 포르투갈성서공회 리더인 플라체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듯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상투메프린시페에 성경이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창조교회 이상경 장로는 “세계 복음화



기증 예식에 참석한 창조교회 성도들. 왼쪽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상경 장로, 김연옥 권사 ©대한성서공회

를 위해 성경을 보내는 데 더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성서공회 권의현 사장은 “이번에 이상경 장로님, 김연옥 권사님께서 후원해 주신 성경을 통해 상투메프린시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들어오는 생명의 말씀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회에 따르면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상투메프린시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작은 섬나라이다. 나라 경제는 대부분 관광과 코코아 생산에 의지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정치 불안으로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더불어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식량 같은 기본 자원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성경을 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공회는 “상투메프린시페에 전해지는 포르투갈어 성경 950부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소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11살까지 기다리자” 스마트폰 금지 캠페인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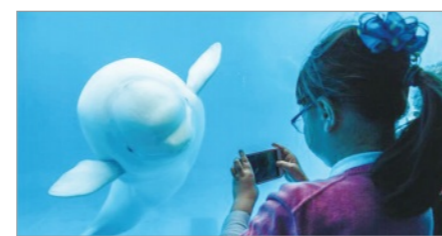
학령아동학부모연대와 하이패밀리, 365어린이재단 공동주최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공동대표 송길원 김향숙)는 학령아동학부모연대(대표 김순호), 365어린이재단(이사장 김향숙)과 함께 스마트폰 금지 캠페인을 공동주최한다고 8일 밝혔다. 캠페인은 11세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부터 허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이른 나이부터 스마트 기기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2021)에 의하면 영유아 가정의 99.6%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17.2%가 영유아 본인용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 하향화 추세는 성장 발달의 기초가 되는 유아기뿐만 아니라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총체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부모와의 애착이 스

마트폰과의 애착으로 전환되면서 공감 능력이나 감정조절력의 결여로 인한 과잉행동과 공격성의 증가, 그 결과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아직 뇌 발달이 미숙한 유아의 경우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면서 뇌세포가 손상될 뿐 아니라 좌뇌만 과도하게 발달하여 좌우 뇌 균형이 깨어진다. 아이들의 신체 사용이 극단적으로 제한되면서 신체 건강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병들어 가고 있다. 최근 6-11세 어린이 우울증 진료 인원이 5년 새 배 가까이 늘어났다. 어린이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전문가인 김향숙 박사는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빨리 노출되는 것뿐 아니라 각종 앱으로



수족관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진 촬영하는 아이의 모습. ©하이패밀리

인해 두뇌 해킹을 당하는 것이 염려스럽다. 중독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최대한 시기를 늦추면서 조절력을 길러주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무심코 쥐어주는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패밀리는 캠페인뿐만 아니라 세계 놀이의 날(5월 28일)에 발맞추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가족예술놀이 캠프’를 개최하며, 스마트폰 과의존 및 중독상담도 늘일 계획이다. 노형구 기자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결제에서 라이프까지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준법감사인심의필 제240402-01381-ADP (2024.4.2~2025.4.1)

# 일본, 1천 개의 무목교회... “누가 무목(無牧) 교회를 위해 갈꼬?”

시드선교회(SEED, 미주대표: 임태호)는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박영기 일본선교사를 초청해 남가주든 든한교회(김홍 목사)에서 ‘누가 무목(無牧) 교회를 위해 갈꼬?’라는 제목으로 일본 선교 세미나를 진행했다.

시드선교회 미주 대표 임태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세미나에서 박영기 목사는 일본 선교의 현주소, 일본 선교를 하게 된 계기와 과정, 일본 선교의 다섯가지 유형에 대해 나누었다.

### ◆일본선교 현주소

박영기 선교사는 일본 전국에 8천 개의 교회 중 코로나 기간에 1천 개가 문을 닫은 사실을 지적하며, 일본 전국에 시단위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이 전국에 6곳이 있으며, 그 중에 3곳(시베츠 시, 아카바리 시, 아츠메비 시)이 훗카이도에 있다고 말했다.

그가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kpm.org)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박상용 목사님 내외 분이 그를 갑자기 찾아왔다. 오랫동안 유니언 선교회에서 큐티 사역을 하였고,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해 교회를 잘 성장시켰던 분이였다. 그 분이, 일본에 무목교회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마지막을 보

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찾아 왔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 일본 현지 교회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훗카이도 베츠카이에 사이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옆 동네에 시베츠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예배당까지 잘 지었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교인이 한 명도 없어서 메노나이트 연합회에서 그 교회를 팔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사러 온 단체가 여호와 의 증인이었다. 베츠카이 교회의 사이키 목사님은, 선교사님이 오셔서 희생한 이 예배당을 여호와 의 증인에 팔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관리하고 유지할테니 우리 교회에 일임을 해달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본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박 씨 씨, 시베츠 교회에 와서 사역할 한국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몇 년 전에 들었다. 박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 몇 년 전 그 말이 생각났다.”

박영기 선교사는 두 분을 모시고 베츠카이 교회로 갔다. 그 두 분을 만난 사이키 목사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주의 종이 와서 사역하길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노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년간 건물이었는데 20년간

불이 꺼져 있어서 딱이 되지 않았는데 밤마다 불만 켜도 선교가 됩니까”라고 했다.

두 분은 먼저 일본 교회 분위기와 일본어를 익히는 시간을 가진 후, 시베츠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지난 부활절 때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 집에서 20개를 주문해, 부활절 설병을 쓴 메모지를 다 담아서 집집 마다 다니며 전달했다. 또, 한국 선교팀을 불러서 페인트를 칠하니 교회가 그 동네에서 제일 새로운 건물로 거듭났다. 남은 페인트로 동네 낡은 곳을 칠하자, 미용실 직원 4명, 원장님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목장 집에서도 오게 되어 예배를 드리는데, 박상용 목사님 부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박영기 선교사는,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부탁 받은 교회가 북해도에만 3군데가 있다. 일본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고, 목회자 한 명이 2-3교회를 순회하기도 한다. 제가 부탁 받은 두 교회는 삿포로 시내에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 다른 하나는 나카시베츠 메노나이트 교회이다. 제가 소속된 교단인 일본 동맹 기독교단 소속의 시다카 그리스도교회도 목회자가 없다”고 일본의 무목교회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서 일본선교 과정을 나눴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배를 묻는다고 훈련을 받



남가주 든든한교회에서 박영기 일본 선교사가 일본 선교 세미나를 이끌던 모습. © 주디 한 기자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 주디 한 기자

라는 부탁을 받았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1993년 신사포로성서교회 설립예배를 드렸다. 일본 동맹 교단에서 10년동안 사역비와 생활비를 지원 해주었다. 1년동안 열심히 사역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을 통일교로 오해했다. 오해를 막기 위해 집집 마다 방문해서 인사를

했다. 그 다음에 삿포로 아츠메비 구, 5만 세대 12만명이 살고 있다. 그래서 5만 장의 교회 안내서를 인쇄해서 가방에 가득 넣어서 가서 집집 마다 다니며 나눠줬다.

몇 달 동안 그것만 뿌렸다. 신기하게 안내서를 보고 연락이 왔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으로 믿고 열심히 가르쳤다. 삿포로에 간 지 3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주셔서 순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박 선교사는 “일본 선교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세미나 2부에서 그는,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서 할 수 있는 사역들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는 혼자 개척해서는 불가능하다”며 선교를 팀 사역으로 할 때 효과적이며, 외롭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에 와서 할 수 있는 사역으로, 1. 무목교회를 섬기는 사역, 2. 일본 교회와 협력하는 사역, 3. 한국 선교사와 동역하는 사역, 직접 개척을 제시했다.

“첫번째, 무목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일본에 1000개의 무목교회가 있다. 예배당과 목사관이 있어서 바로 사역이 시작된다. 일본어가 서툴더라도, 한국 어 교실, 한국 요리교실을 오픈하고 전단지 뿌리면 어느 동네든지 일본 아저머니들이 신청한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일단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을 모을 수 있다.

박 선교사는 8년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했다. 이후 동맹 교단에 들어와 같이 사역하자는 제안을 받고 동맹교단에 들어갔다. 어느날 교단 이사장으로 부터, 훗카이도 삿포로에 가서 개척을 해달

았다.”

“두번째, 일본 교회와 협력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교사, 스포츠 교사, 반주자로 봉사할 수 있다.”

“한국 선교사와 동역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일본에 500 유닛 정도 한국 선교사가 계신데, 부부만 사역하는 것보다 좋은 분들과 팀사역을 하길 원한다. 부부만 사역을 하면 안식년도 갖지 못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당단을 맡아줄 사람이 없다. 협력할 때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직접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 지역을 정하는 것과 예배당과 집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하는 일도 필요하다. 훗카이도에 교회가 있었지만 사라진 곳이 있다.”

박 선교사는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무목교회는 예배당과 사택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만 있으면 생활 가능하다. 선교사로 들어오면 의료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목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2주간 계획하고 있다며, 일본어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일본어 성경 읽기, 일본어 주기도문, 찬송을 배우고, 직접 무목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목교회 선교사로 지원하려면, 여권, 법인체로부터 받은 파송증이 있어야 하며 재정보증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뉴스레터, 이 단체가 건전한 단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뉴스레터), 이력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를 이끈 박영기 선교사는 고신 교단 소속 선교사로, KMP 해외선교회 본부장 역임 했고, 30년동안 일본 선교를 했다. 동경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삿포로에서 7개 현지 교회를 개척했다. 이번 세미나는 협력 남가주 든든한교회(김홍철 목사, 213-481-2779), OC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협의회에서 협력했다.

문의: SEED 선교회(562-926-4700, seedwo@gmail.com) 주디 한 기자

## 오픈뱅크, ‘나에게 열려 있는 은행’ 이미지의 브랜딩 광고 시작

오픈뱅크(행장 민 김)가 새로운 브랜딩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오픈뱅크는 올해 상반기에 ‘나에게 열려 있는 은행’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브랜딩 광고 캠페인을 진행, 기업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고 고객 유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나에게 열려 있는 은행임을 강조했다.

그동안 선한 나눔을 이어가는 은행으로 잘 알려진 오픈뱅크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모든 이들의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 이겨나가는 도전정신과 그 가능성을 응원하는 은행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또한 한 발 더 다가가는 은행으로 고객들

이번 광고 캠페인에서도 오픈뱅크는 은행의 상품을 홍보하기 보다는 한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커뮤니티를 향해 나눌 수 있는 메시지를 광고에 담았다. 이번 광고는 한인 tv 방송과 신문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전달되게 된다.

오픈뱅크 민 김 행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고물가 인플레이션으로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번 때 일수록 서로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젊은 도전자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나눔 실천을 통해 커뮤니티와 동행하고 있는 오픈뱅크의 광고 영상을 통해 서로 칭찬하며 힘이 되어주고 응원하는 한인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의: Jehwan Seong, 213.593.4885, jehwan.seong@myopenbank.com 김민선 기자

## 페트라대학교,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 앞뒤

페트라대학교(총장 김정호 목사)가 오는 11일 오전 10시 LA조이플교회에서 제2회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을 개최한다. LA조이플교회는 866 S. Westmore

land Ave. Los Angeles, CA 90005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사에 대한 문의는 213-210-3877, 213-909-3579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 사장님 지원 플랫폼

#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지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http://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감리실 심의번호 제24-082(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된 내용입니다. 노란우산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가입자가 감득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부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마련된 공제금에 대한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http://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종교 자유와 이주민 사역, 각국 교회 사역 등 위해 기도 요청”

한국선교연구원(KRIM) 세계선교 기도 제목

◇종교에 대한 정부제한지수, 2007년 이후 최고

퓨리서치(Pew Research)는 2007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종교에 대한 정부 제한과 사회적 적대감을 조사해 왔다. 정부제한지수(GRI)는 정부에 의한 종교적 신념과 관행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법률, 정책, 조치를 가지고 평가한다. 사회적 적대지수(SHI)는 종교 관련 괴롭힘, 폭력, 테러/군사 활동, 개종 시 차별, 종교적 상징이나 의복 착용에 대한 적대 행위 등을 가지고 평가한다.

올해 3월에 발표한 14차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제한지수(10점 기준)가 2020년 2.8점에서 2021년 3.0점으로 증가해 2007년 조사 이후 최고로 나타났다. GRI가 매우높음(6.5점 이상), 높음(4.4점 이상) 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는 55개국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한다. 매우높음 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는 아프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 싱가포르, 시리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반면 사회적 적대지수는 2020년 1.8점에서 2021년 1.6점으로 약간 감소했다. 사회적 적대지수(10점 기준)가 매우높음(7.1점 이상), 높음(3.5점 이상) 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는 43개국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SHI가 매우높음 단계에 있는 국가는 아프간, 이집트, 인도,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시리아 등이다.

전 세계에서 종교로 인해 차별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그 땅에 복음 전파의 기회들이 더욱 확장되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pewresearch.org)

◇이주민에 대한 접근 방식 변화 필요

지난해 말 발표된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에 따르면, 전쟁과 분쟁, 폭력 사태로 인한 전 세계의 실종민은 1억 1천만 명을 넘었다.

2017년까지 스웨덴 인터랙트(Interact) 소속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난민 사역을 감당하고, 이후 6년 넘게 유럽침례교연맹(EBF)에서 난민 문제 실무를 맡고 있는 로스버그(Daniel Räsberg) 선교사는 오늘날 이주(migration)가 복합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는 단순히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규정하지 말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과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한다. 이주민 그룹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정과 친밀함을 가지고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여 줄 때 새로운 환경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거나 개종까지 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개방성과 겸손함을 바탕으로 상호 간의 관계를 맺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20~30년 후에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이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까지 염두에 두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혀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을 맞이하는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기술을 가지게 되어 서로 관계를 인정하고, 문화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시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장에서 돌아온 전직 선교사나 학업이나 직장을 이유로 해외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주민들이 겪게 되는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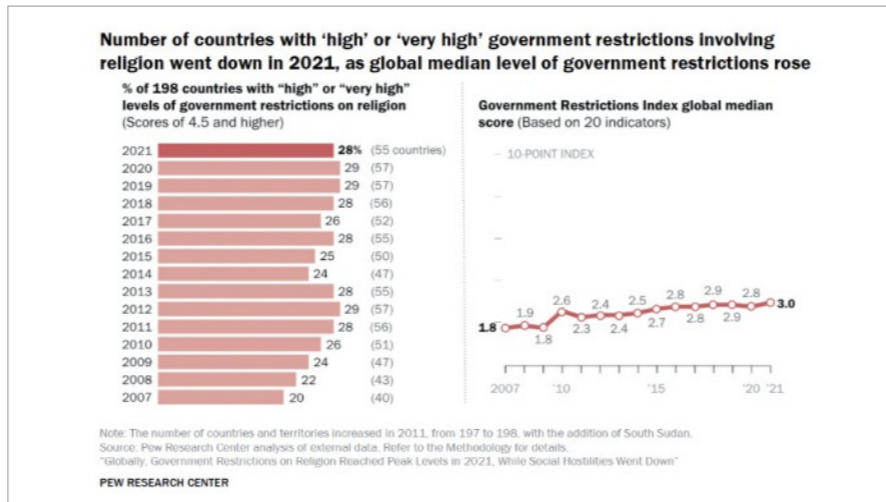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열린 마음과 겸손함으로 이주민들을 맞이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친밀함과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도하자. (출처 EMQ 60, no 1)

◇선교사들이 갈등하는 수치심 극복을 위한 조언

선교사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과 여러 그룹들이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치심(shame)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많다.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에서 20년 넘게 사역해 온 스티븐스(Faith Stephens) 선교사는 환경 적응, 언어 학습, 모금, 사역 기대, 트라우마, 괴롭힘, 위험 인지, 사역과 가정에서 역할, 연로한 부모 걱정, 책임감, 탈진 등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수치심을 인식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뿐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면 부끄러움이 사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먼저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수치심



지난 3월 퓨리서치가 발표한 14차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종교 제한이 2021년에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사회적 적대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

을 경험하는 방식을 인식하고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선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들, 예를 들어 정치적 불안정, 남성 중심 사회, 엄격한 종교법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치심이나 감정에 대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수치심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돌아보고, 배우자나 팀원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에 대해 재평가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권한다.

수치심으로 갈등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죄책감이나 증폭,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 요인들에 대응하면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자유함을 되찾고 사역을 지속해 나가도록 기도하자. (출처 LGA 13, no. 1)

◇쿠바, 2023년에 종교 자유 침해 622건 발생해

전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에서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쿠바에서 종교와 신념의 자유(FoRB)에 대한 침해가 622건 발생했다고 나타났다.

CSW는 쿠바 정부가 2021년 7월 시위 이후 몇몇 종교 지도자들을 구속하면서 지금까지도 억압적인 종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3월에는 구금되어 있는 파자르도(Lorenzo Rosales Fajardo) 목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에서 정치범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는 성경이나 종교서적을 보관할 권리가 제한되고, 교회 목사나 지도자의 면회도 거부당한다. 또한 쿠바 정부가 반체제 인사로 간주한 사람들을 단기적 임의 구금의 형태로 생

활을 통제하기 때문에 종교 예배 참석을 반복적으로 차단당한다고 밝혔다. 종교와 신념의 자유가 훼손된 단체로는 개신교와 가톨릭에 소속된 교회와 단체를 비롯하여 쿠바교회협의회(CCO)에 속한 미등록 단체들, 여호와의 증인, 아프리카계 쿠바단체들까지 포함되었다. 지난 3월에도 쿠바에서는 산티아고데쿠바(Santiago de Cuba)를 비롯하여 5개 도시에서 하루 최대 18시간에 이르는 정전과 식량 부족의 개선을 요구하며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쿠바 정부는 공산 정권 6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시장개발(WFP)에 원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보고서는 많은 쿠바인들이 사회 불안과 경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것 외에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쿠바 정부가 경제 안정과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종교 탄압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쿠바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연합하여 사랑을 실천하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sw.org.uk, evangelicallfocus.com)

◇콜롬비아, 모계 중심 문화를 읽는 선교적 접근 필요

콜롬비아에서 가족은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 기반인 동시에 개개인에게 지지와 위안을 주는 원천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콜롬비아 문화는 모계 중심이어서 가족생활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어머니는 가족의 유대와 전통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는 경우가 많다.

남 아프리카 스텔렌보쉬 대학(Stellenbosch University)의 선교연구원 인 르네(Renee Rheinbolt-Urbe) 박사는 2024년 4월에 글로벌 선교학(Global



수단 내전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과 귀환민들이 남수단 국경 지점에서 트럭을 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전 세계 실종민은 1억 1천만 명을 넘었다. ©UNHCR/Andrew McConnell

Missiology)에 기고하면서, 지난 세기 콜롬비아에 들어온 복음 선교사들이 교회 내의 신앙공동체를 강조하면서 도리어 혈족이나 친족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부각시켜서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미국에 기반을 둔 선교단체들이 콜롬비아의 문화적 역동성 내에서 모성적 요인에 민감하지 않았음을 발견했고, 도리어 콜롬비아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는지 확인했다.

르네 박사는 2003년 미국의 선교단체들이 콜롬비아에서 철수하면서 2천 명에 달하던 콜롬비아연교회(ACO)의 교인들이 일시적으로 200명까지 줄었지만 교회 내 어머니들의 역할이 재조정되면서 2010년에 700명까지 교인들이 늘어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콜롬비아 교회에서 어머니들은 계속해서 집을 열고, 요리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가정교회들이 교회로 연결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콜롬비아의 문화적 전통과 모계 중심 사회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콜롬비아 사회에 알맞은 선교적 접근이 이뤄지고, 콜롬비아 교회들이 앞으로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하자. (출처 Global Missiology 21, no. 2)

◇브라질,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기 위한 교회의 대응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률 5위를 차지하는 브라질에서는 여성 10명 중 3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2023년 여성서비스센터(CAM) 핫라인을 통해 매일 평균 245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을 신고했다. 브라질 교회는 최근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단 차원에서 가정폭력을 다루기 위한 표준 절차를 만들었지만, 많은 피해

여성들이 수치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최근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는 브라질 교회의 지도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교회들이 피해 여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돌봐야 할지를 논의했다.

마나임(Maanaim) 침례교회의 마틴스(Yago Martins) 목사는 “먼저 보호하고 나중에 조사하라”고 말한다. 간혹 허위 신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불필요한 조사를 뒤로 미루라는 것이다.

상벤토두술(São Bento do Sul) 루터교 신학대학의 스탈호퍼(Alex Stahlhofer) 박사는 고통받는 여성을 안전하게 지원하는 분위기를 교회에 만들 것을 강조한다. 폭력의 내용을 먼저 물어볼 것이 아니라 누가 그녀에게 피난처를 제공할지, 경찰서까지 동행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 여성에 대한 기밀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마고 데이 미션(Imago Dei Mission)의 코디네이터인 카를발루(Jennifer Carvalho)도 이 여성들이 또다시 교회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부적절한 질문이나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을 묻는 경우 학대받은 여성들이 도리어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 교회가 가정폭력으로 학대받고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hristianitytoday.com)

한국선교연구원(KRI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지켜요!

국민안심이 기준입니다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구분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익혀먹기**

육류 중심온도 75℃ (어패류 85℃) 1분 이상 익히기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먹기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

# 무신론자 여성운동가 도킨스와 토론... “기독교 비판 후회”

여성 인권 운동가이자 작가인 아얀 히르시 알리(Ayaan Hirsi Ali)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첫 번째 반체제 대담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후회했다.

알리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똑같이 해롭다는 과거 주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알리는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와의 토론에서 이같은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종교가 한결같이 파괴적이라는 과거의 믿음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녀는 ‘언허드’ 편집장이자 행사 진행자인 프레디 셰이머스에게 “그 일을 한 것을 정말 후회한다”라고 고백했다. 그녀는 실행 가능한 도덕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신앙에 대한 회의론을 조장해 현재

기독교가 유익하게 채우고 있다고 믿는 문화적, 도덕적 틀에 공백을 남기는 등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인정했다.

그녀는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음 세대에겐 전달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며 “우리는 도덕적 틀을 빼앗고 그것이 더무늬없고 거것이라고 말해 다음 세대를 실망시켰다. 우리는 또한 그들의 마음과 정신, 영혼을 노리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도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 게 됐다. 무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강력한 존재가 존재하게 된다. (이 존재) 저를 변화시킨 신이다”라고 했다.

알리는 “당신처럼 나도 일반적으로 신앙을, 특히 기독교를 조롱 했지만 더 이

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항상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잃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라고 했다.

알리는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은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희망을 잃었고 믿음을 잃었다. 시도해 보라... 기도하라”. 알리는 그녀로부터 들은 내용에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알리는 “목사님의 말씀이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말 알리가 있는 말이다...기독교는 사실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알리가 무신론에서 기독교 정체성으로 전환한 것은 특히 2000년대 초반 종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유명한 신무신론 공동체의 전 동료들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CP는 전했다.



리처드 도킨스와 프레디 셰이머스와 토론 중인 아얀 히르시 알리. ©X 캡처

앞서 매체 ‘언허드’를 통해 그녀가 발표한 내용은 서구 문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 기독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관점은 처음에는 도킨스로부터 회의적인 시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녀가 새로 발견한

신앙에 도전했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그녀의 믿음과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킨스는 공개 서한을 통해 예수의 부활과 같은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지 의심했다.

그러나 최근 대화에서 도킨스의 입장이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에 대한 알리의 개인적인 증언에 직면하여 도킨스는 “당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라며 “나는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대화는 또한 종교적 신념이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다루었다. 알리와 도킨스는 둘 다 이슬람의 문제적 측면에 동의했는데, 도킨스는 이슬람을 ‘불쾌한 종교’라고 묘사했다. 최근 도킨스는 자신을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종교 운동에 존재하는 더 해로운 이데올로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가벼운 바이러스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미경 기자

## 美 나바호랜드 성공회 교회, 선교교구 승격 앞뒤

미국 나바호랜드 성공회 교회가 선교교구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제81차 성공회 총회 통치 및 구조위원회는 최근 선교 교구 창설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 C009로 알려진 이 법안은 오는 6월 말 캔자스주 루이빌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81차 총회에서 고려될 예정이다.

나바호랜드 성공회 교회는 최근 페이스 북을 통해 “만장일치로 지지해 준 통치 및 구조에 관한 임법위원회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캔자스에서 만나요”라고 했다. 이 지역 가구는 1978년 창설되었으며



나바호랜드 성공회 교회 유튜브 캡처

에리조나, 뉴멕시코, 유타 일부를 포함하는 나바호족 보호구역의 성공회 신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 지역구가 선교교구로 승격되면 성공회 주교단이 (주교들) 임명하는 대신 관

례에 따라 자체 주교를 선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공회뉴스서비스(ENNS)는 밝혔다.

선교 교구는 교단 헌법과 교회법을 준수한다면 자체 헌법과 교회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 또한 감독, 상임위원회, 총회 대의원을 선출할 수도 있다.

나바호랜드 지역 성직자 대표 레슬 샘프슨 목사는 결의안 C009를 지지하는 증언을 전했다.

그는 “우리 공동체는 나바호 교리를 반영하는 교회로 발전하기 위해 이 긴 여정을 걸어왔다”라며 “이것이 바로 이 다음 세대가 준비된 이유이며, 우리가 성취해야

할 동일한 비전인 총회에 참여하기를 요청한다.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심으셨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교회의 총명한 삶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또 다른 증언은 지역 선교부 대리인인 카탈레나 플라머 목사가 전했다. 고인이 된 그의 아버지는 교단의 첫 번째 나바호 감독이었다.

그는 “아버지는 언젠가 나바호 보호구역에서 교회를 인도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교육받은 현지 지도자들을 갖춘 나바호 지역 선교부를 원하셨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 바이든 “사람들 하마스 참상 경시”...대학가 반전시위 겨냥

홀로코스트박물관 연례 추모식 연설 “7개월 지났는데 하마스 테러 잊어” 반유대주의 두고 “지극히 비열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의 고문과 테러를 위한 끔찍한 성폭력을 포함한 10월7일(공적)과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의 참상을 부정하고 경시하며 합리화하고 무시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DC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열린 연례 추모식 연설에서 “7년이 아니라 불과 7개월하고 반이 지났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미 하마스가 이 테러를 일으켰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미국 인구의 약 2%에 불과한 유대계 미국인들은 건국초기부터 국민 모두를 위한 자유의 대의를 위해 앞장서왔다”며 “우리는 소수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약화시키는 것은 모든 소수자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면서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발언하고 토론하며 반대하고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를 알리는 근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그게 미국이다. 그러나 캠퍼스 어디든 미국에서는 반유대주의나 혐오발언, 폭력적인 위협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한 가자사태 반전시위를 정면 겨냥한 발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세계 유대인들이 그날의 잔학 행위와 트라우마, 그 여파에 여전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전세계에서 반유대주의가 격렬히 급증하는 것을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 캠퍼스에서 유대인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지극히 비열한 행위이며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학가에서 확산한 가자사태 반전시위에 대한 완고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백악관에서 관련 연설에 나서 “기물 파손, 무단 침입, 창문을 깨고 캠퍼스를 폐쇄하며 수업과 졸업식을 취소하게 하는 행위들은 어떠한 것도 평화로운 시위가 아니다”며 시위대를 비판했다.

이윤희 특파원

## OPCW “러시아 화학무기 사용 입증 부족...재등장 우려 여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증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OPCW는 7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를 고발하고 화학무기 사용 혐의를 국제기구에 보고했다. 양측이 현재까지 기구에 제공한 정보와 사무국이 입수한 정보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독성 화학 물질의 무기화가 재등장 가능

성과 관련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세계에서 신고된 모든 화학무기 비축물의 파괴는 지난해 7월 OPCW 사무국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완료됐다. 그렇다고 화학무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OPCW는 지난해 7월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모든 당사국이 선언한 비축물 중 마지막 화학무기가 폐기됐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사무국은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뒤로 독성 화학물질을 무기로 사

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영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며 “지난 1일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전면전과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 러시아에 새로운 조치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협약 목록에 속하는 화학물질인 클로로 피크린과 전쟁 수단으로 폭동 진압제를 사용한 것이 포함됐다. 러시아는 이 같은 무기 사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OPCW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협약 10조에 따라 화학무기와 관련한 지원과 보호 분야에서 계속 도움을 제

공할 예정”이라면서 “이 체계에서 사무국은 관련 교육과 함께 긴급 대응에 관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보호탐자식별 장비를 제공하는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OPCW 193개 회원국 모두 화학무기 개발·생산·획득·비축·이전·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CWC 당사국은 화학무기 사용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법적 규범과 기준에 어긋난다고 선언했다”라고 환기했다.

이명동 기자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ON

# 환경도 시민도 활짝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질 선도 공단  
폐기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주)오뚜기 창립 55주년



# 당신과 꽃피운 오뚜기 55년

55년 동안  
여러분의  
사랑 덕에  
응원 덕에  
행복 덕에

오뚜기는  
더 맛있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난 55년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더 맛있게 보답하는  
오뚜기가 되겠습니다

# 윤 '비선 논란' 또 번져... 기자회견서 말할까

함성득·임혁백 '영수회담 비공식 라인' 주장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을 둘러싼 '비선(비공식 라인)'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과정에서 함성득·임혁백 두 사람이 비공식 라인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에 대해 직접 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함성득·임혁백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한 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 과정에서 비공식 채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적극 부인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회담을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함성득·임혁백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수회담에서 총리를 포함한) 인사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부인했다.

문제는 이같은 비선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일부 참모들은 "검토 중"이라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정진석 실장도 이번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 참모들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그는 함성득·임혁백 인터뷰를 두고 "정치역사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국 기자

# 이재명 "영수회담, 비서실장이 협의해 진행... 비선 논란 부인"

민주당 "임혁백 메시지 인정한 바 없어"... 함성득 발언 파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임혁백 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몰래에서 조율했다는 '비선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우리 비서실장이 용산(청와대)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임 전 위원장의 메시지 역할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임혁백을 메시지로 인정한 바 없다"며 부인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비선 논란) 내용 자체가 거론된 게 없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함성득 경시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 전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이재명-윤석열 영수회담의 비공식 메시지를 지체하면서 불거졌다. 두 사람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는 등 민감한 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함 원장은 윤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비선' 의혹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항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비선 논란'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진실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국 기자

# 민주당·혁신당 "22대 국회서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3법' 발의... 공소장·중수청 설치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이겠다고 공동 목소리를 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이 제출되고 검찰 수사권이 일부 축소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동력 상실과 전략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재로 개혁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복귀했다며 검찰개혁을 원점에서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검찰청 폐지, 공소장·중대범죄 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검찰은 무소불위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와 행패가 극에 달했다"며 "22대에 검찰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라며 "임시 맡긴 검찰 수사권을 제자리로 돌리고 독립 검찰기구 도입 등 민주적 통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향후 윤석열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용국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구속 재판 받나

서울고법 '보석 인용'... 1심서 실형 선고받고 재구금됐지만 석방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8일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종로구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측근의 첫 유죄판결이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한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구금됐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했다. 그는 남측 변호사로부터 부정확한 방법으로 8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고, 뇌물 혐의 중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됐다. 김 전 부원장은 보석 심문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는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국 기자

#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 영남·초선 표심이 '바로미터'

이종배·송석준·추경호 3인 정견발표... 영남·수도권 의원들 표심 주목

국민의힘이 8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를 열면서, 영남권과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인 90명 중 66%인 59명이 영남권으로, 영남 의원들의 선택이 원내대표 선거 향배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원내대표 경합이 없는 초선 당선인 44명(40.7%)의 표심도 당락을 좌우할 변수다.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정견발표회에는 이종배·송석준·추경호 의원 등 3명의 후보가 나선다. 추경호 의원은 유일한 영남권 후보로, 대구경북(TK) 등 영남 의원들



추경호(왼쪽 사진부터), 송석준, 이종배 의원이 5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왼쪽 첫번째 두번째 사진은 추경호, 송석준 의원은 이날 등록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이종배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국민의힘 중진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민심 이반 수습을 위해서는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최다선인 이종배 의원은 대야 협상 경험을 내세우며 '시행착오 없는' 지도부를 자임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영남권 의원이 연이어 원내대표를 맡아왔다. 이에 영남권과 함께 수도권 민심 회복을 위한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원내 입지가 작은 초선들의 선택도 주목된다. 정견발표 이후 본격화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영남권과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용국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콜에어파스 에어로솔 의약품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한양행

# 의사단체, '의대 정원 증원' 근거 과학성 직접 검증 나선다

전문가 30~50명 위원회 구성... 정부 자료 검증보고서 제출 예정

전국외과대학교수협 의회와 대한의학회는 8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을 직접 검증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과학성 검증 위원회(가칭)



위원회는 ▲인력추계검증 ▲기초의학 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검토 ▲지역 및 필수의료 검토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검증 등 세부 분야로 나눠 정부의 보건의

료 정책을 검증한다. 그리고 검증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할 계획이다. 의사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증원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전문가 위원회 구성은 직접 '2000명 증원'의 근거를 검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검증 이후에도 향후 보건의료 인력 예측 등 정부 정책을 지속해서 평가하고 알릴 방침이다. 이나래 기자

## 中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소비자 정보 중국 이전 강요 논란

개인·결제정보 등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동의하도록 절차 변경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와 결제정보를 중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약관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는 제품 결제 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여기에는 구매자의 이름, 연락처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카드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돼 있다. 이 항목에 동의하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중국 소재 개인정보 처리 업체는 물론 중국 판매자에게도 정보가 공유된다. 반면 동의하지 않으면 결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p>본인은 모든 약관을 읽고 동의하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전체 동의에는 필수 및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가 포함됩니다. 귀하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체크박스를 클릭하지 않음으로써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실 경우 귀하의 구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이메일약관및정책및대한민국 소비자를 위한 추가 정보 (필수)</li> <li>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관세청(필요한 경우), Louisfree Franchise Store/중국 (필수) 자세히 보기</li> <li>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 (필수): Louisfree Franchise Store/중국(qw1853888122@gmail.com 자세히 보기)</li> </ul>	<p>본인은 모든 약관을 읽고 동의하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전체 동의에는 필수 및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가 포함됩니다. 귀하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체크박스를 클릭하지 않음으로써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실 경우 귀하의 구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이메일약관및정책및대한민국 소비자를 위한 추가 정보 (필수)</li> <li>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관세청(필요한 경우), ALIUPS Store/중국 (필수) 자세히 보기</li> <li>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 (필수): ALIUPS Store/중국(hu1737279935@163.com 자세히 보기)</li> </ul>
--	--

알리익스프레스 내 제품 결제 페이지 모습. 중국 판매자와 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다. ©홈페이지 캡처

테무(TEMU)도 약관에 국내 소비자 정보를 중국 법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내 소비자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며, 허위과장 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외 이커머스 기업의 개인정보 취급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지난달 중국인 레이 장 씨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해 국내 경영을 맡기도 했다. 이나래 기자

## 日정부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관계 재검토 요구한 적 없다"

정보유출 방지 위한 '보안 조치' 강화 목적... 네이버 압박 지속되나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분 변경 요구 사실은 부인하며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 강화가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사진)은 7일 "통신기밀 유출 등 안보상 중대

사건 발생을 바탕으로 행정지도를 내렸다"며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검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과 최근 라인야후에 2차례 행정지도를 했다. 통신비밀 보호와 사이버보안 확보를 지시했고, 2차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의 이번 해명에 국내에서는 여전히 소프트뱅크 라인 지배력 강화의 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민간에서는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며 범국가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분 변경 요구 사실을 직접 부인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서는 정보 유출을 구실로 지속 압박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만약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면 경영권이 넘어가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나래 기자

##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17일 서울중앙지법서 심문 열려... 하이브 "민 대표 배임"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이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오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 안건을 임시 주주총회에 올리려 하는 것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이브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다.

민 대표는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 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주총이 열린다면 15일 이후 날짜를 잡게 되는데, 민 대표 해임이 예상된다. 이에 민 대표가 가처분으로 하이브의 해임 시도 자체를 막고자 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배임 등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 중이다. 지난달에는 경찰에 고발장까지 접수했다. 양측은 향후 가처분 심문과 주총 소집 등을 두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이나래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의 심문이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그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뉴시스

## 머스크, 중국에서 '로보택시' 출시 제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중국 당국에 '로보택시(완전자율주행 택시) 출시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중국 영자지 차이나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최근 중국 방문 당시

중국 측에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 승인과 함께 로보택시 도입을 요구했다고 한다. 앞서 머스크 CEO는 오는 8월 8일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리창 총리 등을 만나 FSD 서비스 출시를 논의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외국계 업체 중 처음

으로 테슬라에 데이터 안전검사 적합 판정을 내렸다. 테슬라는 중국 빅테크 바이두와도 지능형운전시스템 지도 제작 및 내비게이션 분야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외국 기업이 지능형운전시스템을 공공도로에 적용하려면 중국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흥은혜 기자

## 보건의료 '심각' 위기 시 외국 의사도 국내 진료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이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날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로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의료 인력 부족 장기화가 우려되자 외국 의사 동원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대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의료서비스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나래 기자

## 금감원장 "해외 대체투자·취약업종 기업대출 선제 구조조정"

"자본시장 체질 전환... 실물경제 발전·국민 자산형성 선순환 구조 만들 것"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 대체투

자 및 취약업종 기업대출 등에 대해 체계적 위험평가와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해서도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 인센티브를 제공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자본시장의 체질을 전환해 실물경제 발전과 국민 자산형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회계 투명성 제고, 공사상장제도 개선 등으로 자본시장 인프라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권리 보호와 지배구조 정착 등 투자자 친

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개발과 조사 강화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디지털 혁신을 위한 환경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의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리스크 관리 강화, 자본시장 체질 개선,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김병철 전략감독부원장보도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해 금융산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이슈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의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반인약품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원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배움에 게으른 장로의 교회, 희망적일 수 없어”

황대우 박사, ‘장로가 배워야 교회가 산다’ 주제로 메시지 전해



황대우 박사(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 원장·사진)가 최근 개혁주의 학술원 홈페이지에 ‘장로가 배워야 교회가 산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황 박사는 “장로는 구약에서 유래한 직분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시대에는 장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장로라는 용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출애굽기 3장 16절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로가 존재했다. 당시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구약의 장로들은 나이가 든 노인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판결하는 일에 종사했다”며 “모세가 혼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 질심 인을 모아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 모세와 함께 서도록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모세 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민 11:16-17)”고 했다.

또 “장로들의 주요 임무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 즉 통치자와 재판장의 역할이었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에서는 장로와 같은 임무를 맡은 자를 감독이라 불렀다. 감독은 일정 지역의 통치자를 의미한다”며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장로와 감독은 동의어였다”고 했다. 그는 “신약교회의 장로와 감독은 주요

업무에 따라 두 종류 즉 ‘잘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로 나누어져 업무분담이 이루어졌다(딤후 5:17)”며 “다스리는 장로는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요 업무가 다를 뿐 장로는 다스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는 직분이다. 그런 장로들을 온 교회가 존경해야 마땅하다고 바울은 권면한다”고 했다.

이어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도 가르치는 자도 모두 장로지만 다스림과 가르침의 세부 업무는 구분된다”며 “오늘날 다스리는 일은 장로가 담당하고 가르치는 일은 목사가 담당한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면서 동시에 다스리는 장로다. 하지만 장로는 목사와 달리 자동으로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 역할을 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장로는 목사와 같은 훈련 기간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신교회의 경우 최소 3-5년 혹은 7-9년 동안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로 활동하기까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간 훈련을 받았다. 바울 역시 갑작스러운 회심 후 본격적인 사도로 활동하기 전에 아라비아와 고향 다소에서 약 3년의 수련기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갈 1:17-18; 행 9:30)”고 했다.

더불어 “베드로와 바울은 신약교회의 대표적인 말씀 봉사자로서 가르치는 장로”라며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활동했다. 오늘날 목사와 달리 그들이 하나의 지역교회에 정착한 목회자는 아니었다. 베드로와 바울의 주된 임무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홀로 감당할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조력자들이 있었다”며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와 같은 조력자는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필수 조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조력자였다(잠조. 벰전 5:13; 딤후 4:11). 마가나 디모데는 단순히 베드로나 바울에게 개인 비서 정도의 조력자가 아니라, 그들과 같은 말씀 사역의 동역자로 보아야 한다. 그들은 다년간의 조력과 훈련을 통해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황 박사는 “성경적으로 장로의 필수 직무는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이 두 직무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목사의 가르치는 직무와 장로의 다스리는 직무는 서로 구분되고 분리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장로에게 가르치는 직무가 직접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해도 다스리는 장로라면 자신의 교회에서 목사 다음으로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 정도는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교회 직분자의 기본이자 공통적인 자격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아는 것”이라며 “예루살렘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제업무를 전담할 사람 일곱을 뽑았는데, 그들은 ‘성령과 지혜’ 즉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스테반과 빌립은 사도들 못지않게 설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잘 감당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즉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없는 장로가 교회를 말씀대로 잘 다스릴 가능성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든 국가든 일반적인 사회 집단을 경영하는 원리는 그 역사와 현장, 그리고 지도자들의 지식과 경험 등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교회를 잘 경영하는 원리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서만 찾아야 한다. 교회는 말씀 위에만 세워질 수 있고 말씀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보다 더 큰 교회 불행은 없다. 목사 창립뿐만 아니라 장로 선출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신앙지식”이라며 “이것은 모든 교회 직분의 필수 자격조건이다. 이것을 자격조건으로 제시하지 않거나 그 자격 조건에 한참 미달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교회는 사탄의 유혹과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로는 누구보다 성경지식과 신앙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성경을 머리배울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배워야 한다. 가슴으로 배운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감동하고 자신의 삶을 진리인 성경에 맡기는 훈련을 의미한다”며 “장로는 그 훈련을 가장 잘 받은 탁월한 신자여야 한다. 다스리는 장로보다 가르치는 목사는 배나 탁월해야 한다. 이런 장로들을 통해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된다. 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시금석은 성경을 삶으로 체득한 지식, 산 신앙”이라고 했다.

이어 “장로의 주요 임무는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다. 교회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원리를 알아야 하고 그 원리를 성경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며 “성경 66권의 내용은 통일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다.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은 실과 구슬이다. 통일성이라는 실로 다양성이라는 구슬을 꿰어야 한다. 성경의 통일성을

소개하는 길라잡이는 우리의 신앙고백이다. 따라서 장로는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고백에도 잘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 “장로가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민감해야 한다. 성경지식으로 이단적인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식견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며 “강단의 설교가 신앙고백에서 벗어나는 지 분별하는 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장로는 교인들이 선포된 설교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데, 그래서 심방이 필요하다. 심방은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장로가 심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더불어 “심방을 통해 장로는 각 가정을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다. 그리고 심방결과를 반드시 목사와 당회에 보고하고 보고 받은 당회원들은 혹 심방한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며 “당회원들은 그 가정의 어려움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모든 심방의 원리도 성경과 신앙고백으로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심방을 해야 신앙적 권면도 가능하고 교회의 치리도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황 박사는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숙지하여 가르칠 역량과 적용할 지혜를 갖춘 장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장로를 세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에 충성하는 신자를 장로로 세워야 교회다”며 “예전에는 장로를 뽑을 때 성경지식은 기본이요,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교회 일에 앞장서는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을 장로로 뽑았다. 거기다가 인성까지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한 마

디로 까다로웠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담임목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 혹은 돈이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괜찮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체면에 충실하려는 인본주의적인 현상”이라며 “이런 현상은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고 또한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충실한 성도를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리아신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간의 존중과 협력만이 교회가 살 길이다. 갈등과 분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술수다. 모든 교회 직분자들, 특히 장로는 교회의 파수꾼이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며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민감한 자만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 장로가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교회가 산다. 장로로서 교회를 말씀대로 세우고 싶다면 우선 성경과 신앙고백에 정통해야 한다. 배움에 게으른 장로의 교회는 희망적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신자들에게 세상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이 죽고 성경적인 상호존중심이 살아나려면 교회의 직분자 선출은 욕망과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이전투구의 장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축복과 화평으로 충만한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의 직분은 교회의 꽃이자 기둥이다.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교회를 반석위에 세우는 든든한 기둥으로 서있길 바란다”고 했다. 주요한 기자

# “사명과 구원 때문에 울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된 인생 되길”

김양재 목사, ‘뻘한 눈물 그만 흘립시다’라는 주제로 메시지 전해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가 최근 ‘김양재 목사(사진)의 OST’라는 코너에서 ‘뻘한 눈물 그만 흘립시다’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성경에서 제일 울보는 누구일까”라며 “단연 압도적으로 1위는 다윗이다. 그 다음으로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린다”고 했다.

이어 “성경에서 기록된 눈물을 흘린 또 다른 선지자 있다.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라며 “기적의 사역을 행하던 엘리사가 적국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전혀 갈 일이 없는 곳인데, 갑자기 찾아간 이유는 다메섹에 남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승 엘리야가 이루지 못하

고 제자 엘리사에게 남기고 간 사명으로,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사명을 대신 완수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며 “아무리 그레도 이스라엘과 아람은 원수지간이었다. 그런데 가기 어려운 그곳에 가기로 작정하니 하나님은 준비하신 알맞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아람의 벤하닷 왕이 병에 걸린 것이다. 왕은 엘리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끼는 수하 하사엘에게 온갖 예물을

실어주면서 자기 병이 낫겠는지 가서 물어보라고 말한다”며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르러 다메섹에 가는데, 그 하사엘이 화려한 환영행렬을 이끌고 엘리사 앞에 직접 찾아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명 때문에 갔어도 어마어마한 예물이 눈앞에 있으면 어땠겠는가”라며 “무슨 부탁이라도 들어주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사명을 예물에 팔아먹지 않는다. 할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 왕이 반드시 낫겠지만, 반드시 죽게 될 것

이다라고 예언하고 하사엘이 민망해하며 쏘아보다가 이내(엘리사가) 소리 내어 통곡을 한다. 믿을 없는 하사엘이 당황해서 그 이유를 물으니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매지며 아이 뱀 부녀를 가르리라(왕하 8:12)’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벤하닷에게 반역하고 왕이 될 하사엘과 그런 그가 행할 악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이라며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닌 돌아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았다. 그래서 통곡하며 슬펐지만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사명을 완수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목사는 “엘리야의 눈물이 이해되는가? 우리도 뻘하게 자기 사명 때문에 울지 말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며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사명과 구원 때문에 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요한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개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발기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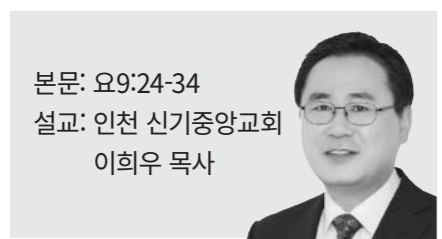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공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캠코신비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요한복음(51) '고군분투'



본문: 요9:24-34  
설교: 인천 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매들린 L. 반 헤케가 쓴 『블라인드 스팟(blind spot)』이라는 책이 있다. 미국 NBC 11부작 드라마로도 유명한데 '블라인드 스팟'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에 나타나지 않는 사각지대를 말한다. 또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도 '블라인드 스팟'이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본다던가, 중요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이는 것, 남의 결점이나 세상 이치는 많이 알면서 정작 자기 결점은 모르는 것, 이런 것이 '블라인드 스팟'이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시대 사람들이 다 보거나 주위들은 게 너무 많다. 문제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듣는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치 잡탕밥에 햇배만 부른 사람들처럼 산다.

베르너 티키 귀스텐마허(Werner Tiki Küstenmacher)는 『단순하게 살아가라』라는 책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쓰레기"라며 '정리의 힘과 버리는 기술이 삶을 단순하게 한다고 했다. 단순할수록 좋고, 단순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본문에 오랜 세월 볼 수 없어서 단순하게 살았던 주인공이 등장한다. 눈을 떠보니 신세계, 진실을 보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지만 갑자기 삶이 너무 복잡하다. 이웃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부모와의 관계도 틀어지게 됐다. 불편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소리라도 질러야 할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의 단순하게 사는 모습이 압권이다. 초점을 예수께 맞춘 사람, 진실을 붙잡는다. 적당한 결심이 아니다. 심지어 출교라는 사람 죽이는 끔찍한 압박 카드에도 흔들림이 없다. 출교가 두려워 부모마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떠나는 상황이지만 투쟁을 시작한다. 용기와 지혜가 돋보이는, 9장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본문, 주인공의 고군분투(孤軍奮鬪)가 너무 멋지다.

◆한 가지 아는 것  
출교 협박도 비난도 불사하는 태도, 누가 뭐라든 상관없다. 왜? 한 가지 아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25절),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투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든 바리새인이든 당당하게 맞선다. 자기 아는 그 한 가지가 너무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은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정신이 오락가락했다고 한다. 자기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니까 한 제자가 이 대학자의 명칭해진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지금 아시는 게 뭘입니까?" 그랬더니 아이작 뉴턴이 "두 가지는 알지!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가 내 구주사라는 것. 그건 확실히 알지" 그러셨단다.

본문의 주인공은 지금 자기가 보는 것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자기 눈을 뜨게 한 것은 분명히 안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늘 고군분투하는 인생이었다. 평소처럼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날도 예수님과 그 일행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 대해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분통 터지는 소리다. 이렇게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누군가의 죄 때문이란. 창각이 발달해 너무 잘 들린다. 물론 못 들은 척한다. 이것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고군분투일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침을 뱉고 그걸 흙에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다. 맹인 눈은 눈이 아닌가? 먼지만 들어가고 아픈데 침을 이긴 진흙을 바른 것, 성질 고약한 사람 같았으면 병신 취급한다고 난리 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참는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 2km를 가라는 말씀인데 지팡이 짚고 더듬더듬 가면 몇 시간 걸릴까?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은 족히 가야 한다.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 그래도 끝까지 갔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다. 놀랍다. 앞이 보인다. 고군분투의 결과다.

"아, 세상이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감격하며 돌아오는데 시비가 벌어졌다. 맹인은 지팡이를 짚고 막대기 들고 다녀도 그런 죄가 아니지만 안식일 날에 눈을 뜬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그건 죄라는 것이다. 침으로 흙을 이긴 것도 반죽이라며, 이걸 안식일에 음식 만드는 일을 금하는 것과 연결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말이다. 정말 치졸하다. 그리고 "안식일 범하게 만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라고 한 자를 대라"고 다그친다. 그 사람이 안식일 범한 죄인이라며 난리친다. 생각지도 못했던 시비가 벌어졌 것이다.

사람들이 부모에게 꼬치꼬치 묻고 부모는 그가 장성하였으니 본인한테 물으며 자신도 예수님도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이 사람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 한다. 출교라는 논쟁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분통 터지는 소리다. 이렇게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누군가의 죄 때문이란. 창각이 발달해 너무 잘 들린다. 물론 못 들은 척한다. 이것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고군분투일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맹인이었던 사람의 고군분투는 감정 싸움도 자존심 싸움도 아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의 분명한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33절),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통한 목격담성에 실패하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다시 소환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증인이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언은 출교라는 엄청난 결과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다. 인생을 건 믿음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이다. 이 결단이 중요하다.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소설 중에 『다시 오신 예수』라는 단편이 있다. 이 책에 보면 치유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해서 예수께서 잠깐 세상에 다시 와

서 보셨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시 오신 예수께서 한 알코올 중독자에게 다가가셔서 "왜 이렇게 살아?" 물으셨더니 "절름발이였던 저를 예수님이 고쳐 주셨지만 절름발이일 때는 언어막아서 괜찮았는데 걸으니까 벌어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도로 알코올중독자가 됐어요." 그랬다는 것이다. 또 다시 오신 예수께서 조폭을 만나 "왜 이렇게 살아?" 물으셨더니 조폭은 "제가 원래 맹인이었는데요. 맹인으로 살 땐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꼽고 매스꺼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폭이 됐어요." 그랬단다. 맹인이었던 9장의 주인공 같은 결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왜 살길을 몰랐겠냐? 하지만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는다. 그저 사실만 말하기, 그는 생각을 단순화했다. 확실히 아는 거나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만 증거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얼마나 건강한 생각이며,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

랜스 암스트롱(Lance Armstrong)이란 사람이 있다. 그는 프랑스 일주를 뜻하는 '투르 드 프랑스(Le Tour de France)'에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연승을 한 유명한 미국의 전 사이클 선수다. 도핑 위반 혐의로 모든 기록을 박탈당하고 사이클계에서 영구 추방되기는 했지만 그는 암을 극복한 사람, 그가 쓴 소책자, 『1%의 희망』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암 진단을 받고 절망했지만 이겨야겠다는 강한 의지로 투병하면서 자낸 지 딱 3년째 되던 날인 1999년 10월 2일, 그날을 '까르페 디엠(Carpe Diem)'이라 정하고 그날을 기념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는 말이다. "단 1%의 희망만 있어도 달린다"는 불굴의 의지가 3년을 이기게 했다. 건강한 사람 아닌가? 기록 박탈이 문제가 아니다. 암을 극복하고 7연승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맹인이었던 사람도 마찬가지다. 비록

날 때부터 장성한 때까지 맹인으로 살았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오히려 멀쩡한 바리새인들보다 낫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 사람이 못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다른데 바리새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은 계속 불신한다. 차라리 못 믿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안 믿는 것은 안 된다. 못 믿는 것은 의심하는 건데 있을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다.

◆결과는 출교였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담대하게도 율법 선생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 누가 말하든 진리라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저 자기들의 통념에 따를 뿐이다. 그들의 결정을 보라.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아예 쫓아내어 보내니라"(34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다. "감히 죄인 주제에 누굴 가르쳐?" 알량한 권위로 출교(excommunication)를 결정한다. 쫓아낸 거다.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맹인에게 말이 팔리니 비겁하게 힘으로 누른 거다. 결국 끝까지 당당한 우리의 주인공은 눈 뜬 것으로 인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고 말았다. 부모들이 그토록 걱정했던 결정이 나고 만 것이다.

30절에 보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모세의 제자라면서 그것도 몰라? 이게 맹인이었던 사람의 반응이다. 대단하다. 모세의 제자,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바로 모세가 준 율법이라는 것이다. 모세가 준 생각의 틀, 율법인 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람은 아쩔 수 없이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그게 생각과 의지와 의지 가진 인간의 한계임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 틀로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상대적으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제대로 보게 되었다.

맹인이었기에 맹인에 관한 말씀을 잘 알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과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눈 뜬 기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가 흐를 것임이라"(사

35:5-6), 맹인이 눈 뜨는 기적은 메시아가 와서 베풀 기적 중의 하나라는 말씀이다. 바리새인들도 모르는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동지한 사람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맹인, 대단하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게 아니다. 돌이켜보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지만 영혼은 파리로 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 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시106:15).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르다. 자기 신앙 문제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아예 예수님과 운명공동체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닐까? 끝까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은 이런 신앙을 귀하게 여기신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담대하게도 율법 선생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 누가 말하든 진리라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저 자기들의 통념에 따를 뿐이다. 그들의 결정을 보라.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아예 쫓아내어 보내니라"(34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다. "감히 죄인 주제에 누굴 가르쳐?" 알량한 권위로 출교(excommunication)를 결정한다. 쫓아낸 거다.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맹인에게 말이 팔리니 비겁하게 힘으로 누른 거다. 결국 끝까지 당당한 우리의 주인공은 눈 뜬 것으로 인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고 말았다. 부모들이 그토록 걱정했던 결정이 나고 만 것이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신앙이 투쟁의 연속이란 것, 예수 믿는다고 만사 OK가 아니다. 그리고 시험이 외부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다. 내 안에서도 생기는 것, 과거의 습관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맞서 싸워야 한다. 외롭더라도 고군분투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90년경에도 회당에서 쫓겨 날까봐 두려워서 양다리 걸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은 주기 위한 메시지였다. 세상에서 고통받을까 적당한 타협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출교로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 본문의 주인공처럼 오직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고 사려웠던 과거나 암담한 현재나 불확실한 미래를 잊고 한 가지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다.



##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 게보린®쿨다운정

인후통

발열

근육통

몸살



**30정**

광고심의필 : 2022 - 1618 - 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포에이트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상, 염좌상(염좌상),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 WCC의 종교다원주의 문서 및 총회(통합) 에큐메니컬위원회 문서 평가(5)



**소기천 교수**  
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한국교회정론 대표

## II. 2002년 WCC 중앙위원회의 종교 다원주의 보고서

### 1. WCC 중앙위원회(2002년)의 “종교의 다원성과 기독교인의 자기 이해”에 대한 평가

이 평가에 WCC의 의도가 다 드러난다. 이는 종교 다원주의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WCC가 종교 다원주의를 치밀하고 준비하고 주장한 역사는 이미 111년째 계속되고 있다. 곧 1910년 에든버러부터 꾸준히 종교 다원주의에 방향을 잡고 추진해 온 WCC는 벌써 111년째 타종교와의 대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1961년 뉴델리 보고서와 1975년 나이로비 WCC 총회와 1979년 창조와 구속적인 활동에 관한 대화 지

침과 1989년의 샌안토니오 보고서와 1990년 바아르 선언문과 WCC 자문 위원회(1990)와 타종교와의 대화와 1990년 3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서울 올림픽공원의 역대 경기장에서 열렸던 「정의 평화-창조의 보전」(JPI) 제1차 세계대회에서 발표된 「정의 평화-창조 질서의 보전을 위한 연약(원제-홍수와 무지개 사이에서)이라는 선언문과 1991년 캔버라 WCC 총회와 2002년 WCC 중앙위원회와 WCC의 신앙과 직제에 관한 위원회(200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속에서 모색된 다원주의는 이제 WCC에서 돌이킬 수 없는 진리가 되었다.

2002년 WCC 중앙위원회의 제8항에 변화하고 있는 기독교의 상황은 111년 동안 이어진 WCC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다른 종교 공동체와의 관계에 이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차이점을 가진 “타인”으로 인정하고, 낯선 이들의 “이상함”이 때때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환영하고, 자신을 우리의 적으로 선언한 사람들과도 화해를 추구하도록 도전할

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계의 종교전통들 사이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관계에 이바지하는 영적 분위기와 신학적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WCC 중앙위원회의 주장은 이미 타종교의 대화와 종교 다원주의는 타종교의 구원과 창의성을 인정하고 세계의 종교전통들을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도 배울 뿐만 아니라, 타종교에 대한 신학적 접근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기에 큰 우려는 낳는다.

제10장의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묵화적이며 신약적 차원에서 WCC 중앙위원회는 기독교인이 종교 다원주의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목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WCC 중앙위원회는 많은 기독교인은 자신의 믿음에 전념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주장과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여전히 세상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기쁨을 감격하면서, 아직 구원의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타종교

인에게 전도의 사명을 가장 귀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다.

WCC 중앙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과 기도 생활을 심화시키기 위해 다른 종교전통의 영적 훈련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혼합주의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스며들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도 사실은 아니다. 기독교인은 명상이나 기도를 위해 요가나 선과 같은 타종교의 전통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WCC 중앙위원회는 어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전통에서 추가적인 영적 고향을 찾아 “이중 소속”의 가능성 속에서 살아간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기독교인이면서 불교인, 천주교인, 신천지교도, 대순진리회 등과 공동체의 연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데, 과연 그럴까?

WCC 중앙위원회는 많은 기독교인이 종교 간 결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부름, 전부와 극단주의에 대처할 필요성을 다루기 위한 지침을 요청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의와 평

화 문제에 대해 다른 종교전통의 이웃들과 함께 일하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도 사실은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도 기독교인은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평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 불교식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불교는 고행의 목적으로 기도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임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간의 뜻을 내려놓는 순종의 의미로 기도한다.

WCC 중앙위원회는 이상의 잘못된 진단과 주장을 통하여 “종교 다원주의와 그 의미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이런 허무맹랑한 결론에 누가 동조를 할 것인가?

WCC 중앙위원회는 영적 여행과 종교전통 그리고 정체성과 문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반화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특수성을 포기하고, 타종교와의 대화를 우선함으로써 종교 다원주의의 길만 모색하려는 강한 의도를 보이고 있다. <계속>

## 업매이기 쉬운 죄란?

**박진호 목사**  
렘피스커비우즈한인교회



附會) 식 해석만 나옵니다. 자신이 성경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용한 말씀에서도 “모든 무거운 것과 업매이기 쉬운 죄”를 전체 문장 안에서 의미를 찾지 않고 그 구절만 적당히 이해하고 치웁니다.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들을, 또 “업매이기 쉬운 죄”는 자신이 자주 실패하는 시험이나 여전히 헤어나지 못한 잘못된 습관 등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더욱 열심히 잘 믿어서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해석과 적용 그 자체만 때때로 보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구절의 앞뒤에서 말하는 바는 완전히 무시했거나 아주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본 구절의 앞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에 관해서, 뒤는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더러 바로 앞 11장의 믿음의 선진들과 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본받으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럼 우리 주마간산(走馬看山)식 해석에 따르면 그들이 평생토록 현실 고난을 해결 받고 잘못된 습관과 죄를 고치는 데만 믿음의 싸움을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과연 이 해석이 타당할까요? 아니겠습니까? 우선 예수님께 현실적 고난이 따랐고 불편하긴 했어도 그 문제의 해결만 받으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에게 잘못된 죄나 습관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니까 그렇다 쳐도 구약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어땠습니까? 11장에 의

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려고 현실의 어떤 핍박도 믿음으로 견디어내었지 않습니까? 영원한 본향인 하늘에만 소망을 두었기에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의 형통과 안위와 출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무거운 것이나 업매이기 쉬운 죄도 당연히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선 모든 무거운 것은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등이 믿음으로 인내해야만 했던 현실적 제약과 핍박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들입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들처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권하면서 그분의 어떤 면을 강조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극심한 핍박을 겪었지만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 즉, 당신의 죽음으로 죄인을 구속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소망으로 인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해하듯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 모든 고난과 죄악을 없애준다는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 “업매이기 쉬운 죄”에 대한 뜻도 명료해졌습니다. 헬라 원문과 영어 번역본에는 ‘죄에 정관사 ‘the’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쉽게 넘어지는 여러 도덕적 죄들을 총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가지 죄를 뜻합니다. 앞뒤 문맥을 따지면 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예수

님을 아예 믿지 않는 불신 즉, 무신앙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유대인 신자를 대상으로 기록된 편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자가 되면 도덕적 죄나 오랜 잘못된 습관은 고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기에 자칫 죄를 범해도 열심히 회개합니다. 훨씬 자주 넘어지는 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자이면서도 현실적 제약과 핍박이 닥치면 믿음으로 제대로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방식을 동원하여 현실과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전에 천국의 영광을 목표하지 않고 이 땅에서 형통과 안위를 목표로 하여 자기 뜻과 계획을 앞세우기에 세상과 충돌할 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벌써 불신자들의 방식대로 살고 있기에 세상의 제약, 조롱, 핍박을 겪지 않고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바에 따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수고를 할 아유나 필요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은 죄인들이 당신을 거역하고 핍박하여 고통스럽게 했고 또 멸시 조롱하여 부끄럽게 했어도 다 참으셨다고 합니다. 오직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완수함으로써 기다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그 같은 일을 당해 피곤해질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

다. 천국에서 예수님 같이 영광스럽게 변할 썩지 않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 권세, 명예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정말 신자답게 삶으로써 따르게 마련인 여러 제약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비록 피곤하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중도에 절망하여 다시 불신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신자가 업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업매히 적용하면 신자로서 불신자보다 나쁜 것은 덜하고 때로는 더 선하게 살기는 하지만 인생의 목표를 하늘 보좌에 확실하게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비롯한 종교적 행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도덕적으로 다른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아도 실제적 삶의 방향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며 또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선 어떤 핍박과 조롱도 겁내지 않고 담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업매이기 쉬운 죄란 가장 자주 짓는 죄입니다. 또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할 죄입니다. 주님처럼 때를 얻든 못 얻든 십자가 복음만으로 세상과 당당하게 부딪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필연적으로 따라올 어떤 제약과 핍박과 조롱은 전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또 그나마도 도리어 자주 넘어지는 도덕적 죄나, 아직 헤어나지 못하는 오랜 잘못된 습관을 완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현실적 문제와 고난도 주님께서 당연히 대신 맡아 해결해 주실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 세상에 행복을 水 놓는다.

##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 질문 하나가 가져다주는 힘

신성욱 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나는 어릴 때부터 질문을 많이 던지는 아이였다. 그만큼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많았고, 그걸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성격을 가졌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접근하면 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다 도망을 가곤 했다. 또 골치 아픈 질문을 던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이다. 난 그때 깨달았다. 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별 질문 없이 산다는 사실을 말이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도무지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만큼 질문 자체가 몸에 배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 그저 암기 기계로만 살아온 것이다.

특히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은혜가 되지 않고 믿음 없는 증거라는 식으로 오해를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궁금증이 유발되고 의문점이 생기기도 도무지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습관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매일 성경을 해석하면서 절감하는 것이 하나 있다. 날이 갈수록 성경을 보는 눈이 깊어진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깊고 무궁무진한지는 체험해보지 않은 이는 알 수가 없다. 그 깊고 오묘한 성경 속 진리를 맛보고 경험하는 행복과 즐거움보다 더 큰 것은 내게 없다.

오랫동안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 딤후 35절 말씀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린 시절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가졌던 성경 구절들이 참 많았다. 딤후 35절은 그 중 한



구절이었다. 그동안 궁금했던 구절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정리해왔었는데, 이 구절만큼은 아직도 내게 풀리지 않은 숙제였다.

이런 본문은 딱 한 번만 읽어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내가 궁금해했던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설교하는 모습을 본다.

그뿐 아니라 본문이 말하지 않는 내용으로 설교하거나 주석을 쓴 이들도 많음을 알게 되었다.

딤후 35절의 내용을 한 번 보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되어 있다. 한 번만 읽어도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팍 와야 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나니..."라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 되어 있음이 보이는가? 사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 해야 이해가 쉽다.

그런데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 그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듯하나 실상은 경건의 모양만 보이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구절은 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부인하다'의 원어를 찾아보았다. '아르네오마이'(ἀρνέομαι)라는 헬라어로, '부인하다(deny)', '무시하다(ignore, disregard)', '조롱하다(disdain)'라는 뜻을 갖고 있다.

본문의 문맥도 살펴보았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불경건의 특징'을 논하고 있다. 5절에서 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며 "이런 자들을 파하라"고 지시한다.

여기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야 한다. 딤후 16절에 비슷한 사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로서 한 마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이란 말이다.

딤후 35절이 그와 같은 자를 말한다. 경건을 갖춘 체하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라는 말이다.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가 해야 할 선한 행위를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행방하는 자이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경건의 능력 발휘를 거부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임을 바울이 지적한 것이다.

설교의 왕자인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했다. "If you try to imitate Christ the world will praise you; if you become Christlike it will hate you."

"당신이 그리스도의 모양만 내려 하면 세상은 당신을 칭찬할 것이고,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면 당신을 미워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양새만 갖추고 산다면 세상에서 욕먹을 일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구별된 삶을 산다면 세상에서 당할 핍박이 많은 게 사실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부요한 삶을 좋아한다. 그러하기에 경건의 모양새 갖추는 건 원하지만, 그 경건이 능력이 이끄는 대로 구별되어 사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존재하지 않는지, 내 모습부터 한 번 곰곰이 분석하고 점검해 보련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유대주의자들처럼 형식주의적이고 외식주의적인 자들이 오늘 교회 안이나 노회나 총회 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면 좋겠다.

## 社 說

### '동성애'로 시험대에 오른 한·미교회 관계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허락하는 등 친동성애 노선으로 급격히 기운에 따른 후폭풍이 심상치가 않다. UMC 내 한인총회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국내 감리교 관련 단체들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단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며 "UMC와 절연하라"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를 압박하고 나섰다.

UMC는 지난 1일 열린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조항'을 폐지했다.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조항은 UMC가 지난 40년 동안 슬한 논란 속에서 끈질기게 지켜온 일종의 불문율과도 같았다. 접에서 감리교 신학과 정체성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상징성이 있는 장정 규정을 전격 폐지한 것도 문제지만 동성애를 죄로 규정된 성경의 가르침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결정에 따른 파장은 훨씬 심각할 수 있다.

이번 UMC 총회의 동성애와 관련한 주요 결의는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 자유, 보호를 지지한다"고 선언(사회생활원칙 개정) △동성 결혼식이나 결혼식 주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직자에 대한 무급 징계 1년 이상의 의무적 처벌 조항 삭제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조항 삭제 △교단 사회생활원칙에서 "동성애의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문구 삭제 등이다.

여기서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이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조항 삭제'와 '동성애의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한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앞으로 교단이 동성애 목사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동성애의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문구를 삭제한 것도 동성애를 죄로 규정된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돼 산하 교회와 교인들에게 미칠 충격과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UMC 내 한인교회 총회를 비롯, 한인선교구, 한인목회강화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3일 발표한 공동 목회서신에서 이번 총회의 성 소수자 관련 결정에 대해 "제한 규정을 없앴을 뿐 지지하기 위한 결정이 아님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총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애면서 이를 지지하는 문구로 대체하지 않기로 한 것에 방점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이 밝힌 대로라면 UMC는 그동안 성 소수자들이 교단 내에서 안수를 받는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장정의 일부 항목을 개정한 것이지, 결코 그들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성경을 기

반으로 한 교단의 교리와 신학에서 40년간이나 금지한 동성애를 '차별'이란 인위적인 잣대로 판단한 데 따른 총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성소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앴을 뿐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도 논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는 도로에서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그런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들을 막을 규정이 없으면 도로는 무법천지가 되고 그 피해가 법규를 잘 지키는 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교회법(장정)도 마찬가지다. 성경에 명시된 죄를 범한 이들에 대해 교회가 방임하고 감싸면 교회가 세속에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다.

UMC 총회에서 촉발된 동성애 파장이 미국을 넘어 한국 감리교회로 퍼지는 분위기다. 감리교 회바로세우기연대(감바연), 감리회기독교성회복합의회(감거합),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웨성본) 등 국내 감리교 관련 3개 단체는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기감을 향해 "미 연합감리교회와 교류를 즉시 단절하라"고 촉구했다. 이 세 단체는 "동성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변경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로서 동성애는 분명한 죄"라며 "한국 감리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미 연합감리교회와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한국의 기감 교단은 UMC에 소속된 교단이 아니므로 UMC 총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하지만 양 교단 인사가 총회 때마다 상호 방문하는 등 긴밀한 교류를 이어온 전례가 UMC가 친 동성애로 기운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교단 내부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분출할 경우 교단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기감 관련 3개 단체가 교단을 향해 UMC 총회와 관계를 끊으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도 다른 게 아니다. 이들이 줄곧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세계교회협의회(WCC)에서 기감이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들의 공통분모가 동성애 옹호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장로교회와 미 연합감리교회는 130년 전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으로 한국교회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미국교회와 동성애 목사안수를 허용하는 등 친 동성애 기류로 흐르면서 양국 교회 간에도 미묘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미 양국 교회가 지난 1세기 동안 이어온 깊은 영적 교제가 '동성애'를 사이에 두고 갈라지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수호 측면에서 친 소관계는 오히려 장애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의 선택과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내선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서울시, 전국 최초 '경계선 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 가동

### 자녀 양육도 차질 가능성...가정 방문 등 조인 자녀 발달 지연 우려 시 전문기관 직접 개입

서울시가 '한부모가족의 날(5월 10일)'을 맞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의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이 최초다. 서울시 한부모가정은 총 28만5878가구로 이 가운데 자녀 양육에서 안전이

우려되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는 약 4만 명으로 추산된다.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는 도달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경계선 지능인 중에서도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어려움은 더 크다. 의

도치 않은 부주부나 판단 미흡으로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부모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화상을 입기도 하고 개에 얼굴을 물리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는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 양육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경계선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를 상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장구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내 통합지원단이 신

설된다. 전문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해 초기 상담부터 사례관리까지 지원한다. 상담과 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IQ71~84)으로 판정받은 한부모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위원회가 가구별 사정, 당사자의 양육 의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 대안을 제공한다. 사례관리위원회는 5명 안팎 전문가(단장 1명, 임상심리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심리전문가 등 2명)로 운영된다. 경계선지능 한부모가 지역사회에서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센터(통합지원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연계한다. 불가피하게 직접 양육이 곤란한 상황인 경우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연계한다. 지역사회 거주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양상-운영하는 전문코디네이터가 1대1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 지원, 정보 제공, 점검 역할을 수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동만 분리돼 시설 등에 보호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보호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과 복지지원센터(통합지원단) 지원을 연계

한다. 성장 시기별 자극 결여 등으로 인해 자녀의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이 개입해 자녀의 균형 성장을 지원한다. 김진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내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며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는 사회의 배려와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우리 기자

## (사)성민원, 이천시니어클럽 어버이날 맞아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해"

사단법인 성민원(이사장 권태진 목사)이 이천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이천시니어클럽(관장 김남규)은 5월 7일-8일 이틀에 걸쳐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처 기관인 토마토어린이집(원장 지혜숙) 원아들이 참여해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특별 공연으로 '이천이 좋아' 합창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이천시니어클럽 전 직원이 '어버이 은혜' 합창을 부르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천시니어클럽 김남규 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지역사회 기관 중 어린이들이 있는 어린이집과 협력해 감사의 시간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전 세대를 사랑하고 아우르는 운영법인인 성민원의 영향이 컸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별히 당일 행사에 참석한 사단법인 성민원 이사장 권태진 목사는 "뜻깊은 날, 뜻깊은 시간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세상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모습에 감동했고, 이천시니어클럽 직원들은 앞으로도 어르신들 자신의 부모처럼 섬기고, 배려하며 복지사로서의 첫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포제일교회를 모체로 하는 사단법인 성민원은 한국교회 복지 사업의 모델로서 사람 사랑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지



어버이날 기념 단체 사진 ©이천시니어클럽



토마토어린이집 원아가 참여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이천시니어클럽

사업을 지속해 왔다. 특히 '노노케어', '13세대'와 같은 단어는 성민원에서부터 시작됐고, 성민실버합창단과 성민소년소년합창단을 운영하며 전국 유일무이한 13세대 합창을 통해 세대 간의 화합을 이루는 데 앞장섰다. 이우리 기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활성화... 복지부·청년재단·한국자활복지개발원 3자 협약

보건복지부, 청년재단,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청년재단에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3자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활성화하고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를 분야별로 다양화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다변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며,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년재단은 저소득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 정책 개발·운영 등 사업 기반 조성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2024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가입자 모집연계 등도 협업하여 추진한다. 또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년재단은 세부 사업 이행을 위해 기관 간 청년정책 정보 및 서비스 교류를 활성화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대상 특화 서비스의 개발·제공, 청년 금융정책 포럼 등 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어 청년들이 내일의 꿈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서다운 기자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소득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연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해식 원장은 "협약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사업의 목적은 19~34세(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15~39세) 기준소득 100% 이하(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다운 기자

## 65세 이상 노인,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지원

질병관리청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부모님께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하도록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이며,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65세 이상에게 치명적이다. 또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는 연평균 380명으로 최근 3년(2021~2023년)간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23년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신고(총 432명) 중 65세 이상이 244명(5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어르신들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4년 기준)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 접종을 1회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영유아 뿐만 아니라 어르신 역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차희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최신간  
NEW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설도들과 신명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비목회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섬김으로 나아가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영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산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원승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버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 1장 칼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행하는 성경여행서!



성경의 모든 장을 칼럼으로 저술했습니다. 성경 내용이 이해되고 계속 읽혀집니다. 정통 신학과 교리에 충실하고 적용이 탁월합니다. 경건을 갈망하는 크리스천이 기다려 온 책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에게 권요합니다. 말씀사역자의 평생 자료로 사용됩니다.

저자 | 김명제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예담교회  
발행 | 하우출판사 (온오프라인 판매) (각권 484면, 권당 24,000원)

온라인 판매처 | 알라딘, YES24, 영풍문고, KYOBO

제1권 창세기-룻기    제2권 사무엘상-욥기    제3권 시편-이사야①    제4권 이사야②-마태복음    제5권 마가복음-요한계시록

NAVER 성경 1장 칼럼    성경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책을 펼쳐라 - 교보문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 다문화복음방송

MGBC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덕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http://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가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트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 하늘문을 여는 기도대성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 1:5)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신현영광교회 본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담임목사 박만규  
T 010-3739-4512

##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장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 사랑의 교회 담임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회장

[ 부흥회 특징 ]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울증해결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 청주시 상당구 교회매매

주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구말길 47-15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리(가지기) 229번지/ 229-1번지(지번)

면적 \*대지-264(평) / \*토지-258(평) / \*총면적-522(평) / \*사택- 28(평) / \*교회-46(평)

매매가격: 2억5천만원

<매물장점>  
1.청정지역입니다  
2.교회,기도원,수련원,요양원, 전원생활지로 최적입니다.

연락처 ☎010-5622-8240

## 소망의동산실로원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made in NORWAY

##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이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중 기능성    건강 기능식품

- 원활한 혈액순환!
-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 항산화 건강까지
- 하루 2캡슐
- 고품질 노르웨이산
- 하프물개 오메가3



##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 사도들이 들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 크리스천북뉴스 서평

## '사도바울의 마지막, 특별한 열흘'

이 이야기는 우리를 상상하게 합니다. 팍팍하고 고단한 현실의 짐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잠시이지만 이야기가 들려지는 순간에 열려와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풍성한 상상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들성들성 드러났던 빈 공간이 이야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더하여 좋은 이야기는 우리를 그 이야기 안으로 동참하게 만듭니다. 마치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조용히 그들 곁에 있습니다. 그들과 눈 마주치고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함께 햇살을 맞고, 포옹하며, 감격을 나눕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야기 장르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그 순간 가장 필요한 내용을 여러 장르를 통해 전달합니다. 전기나 편지, 역사적인 서술 등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재구성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시대와 문화, 언어의 차이는

당대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장벽입니다. 하지만 배성해 작가는 이 책 『사도바울의 마지막, 특별한 열흘』에서 성경(text)과 배경(context)을 섬세하게 분석하여, 현재의 독자까지의 공백을 충실하게 메꿔어줍니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인해 성경은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사도들의 행적은 보다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딱딱했던 문자 속 성경 인물들은 생기를 얻어 실존하는 인물과 같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곳곳의 유쾌한 장면들의 배치로 인해, 죽음을 앞둔 사도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더욱 생동감이 넘칩니다.

더불어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곳곳에 등장하니 그 현장감이 더욱 살아납니다. 가령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15)"는 속담이나, 다섯 사도가 흥분하여 "강강술래(73)"를 한다는 대목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나의 죄를 정결화사를 부르는 사도들(253, 390)을 보여 동일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은 한국 저자가 가진 함입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풀어냅니다. 누가 들려주는 데오빌로 이야기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으로 빛낸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와 공명을 이루며,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도 어느새 데오빌로는 사도들의 든든한 지지자로 새겨집니다.

베드로와 마가를 통해 듣는 성령 세례 이야기로 우리는 그때 당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초대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강하게 쏟아부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때 당시의 분주함, 설렘과 기대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던 그때의 흥분과 혼란,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마주하는 누가의 기록은 이렇듯 여러 사도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미처 파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과 복잡한 배경 등이 묘사됩니다. 바울이 눈물과 자책 가운데 들려주는 스테반 집사의 이야기와 헤롯과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 등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찰자의 시선에서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사도행전을 대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각자의 시선에서 자신이 경험하거나 들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박진감 넘치는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우리는 보다 선명하게 그들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는 그리움에 잠기게 하기도 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게도 합니다. 슬픔과 기쁨, 두려움과 평안이 공존하는 그 공간에서의 열흘, 이후 순교의 현장들, 작가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며, 그 이야기가 우리와 동행하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모중현 목사, 크리스천북뉴스 편집위원

## 5월, 작가들의 말말말



송산은 대학을 마치고 영여강습소 운영을 하다가 1962년 3월 고려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동안 학제가 바뀌어서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고, 3월에 입학하였다. 송산이 고려신학교에 입학한 것은 칼빈대학을 마친 후 두 해가 지나서였다. 그 무렵 고신교회는 1960년 12월 13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합동총회를 개최하였을 때 한상동 목사는 총회장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총회장에 재선되었다. 1948년 이자의 목사가 총회장에 재선된 이후 처음이었다. 한상동 목사는 극구 사양하였지만, 마지막에 재선 총회장이 되었다. 그것이 함정이었던 것을 그는 훗날 깨닫게 되었다. 합동총회에서 신학교 문제를 논의하면서 고려신학교와 총회신학교가 같은 총회 안에 있는데, 한 이사회가 두 신학교를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신학교 일원화'를 결의하였고, 이사회 구성은 양 교단 동수로 하기로 정하였다. 그러나 한 해 만에 이것이 바뀌었고, 신학교 이사회에서는 고려신학교를 총회신학교에 병합하는 상정안을 제출하였고, 그의 사회로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나삼진 '송산 박재석 평전'



성서에 대한 지극히 유대교적인 주석 방식은 그리스도교가 모든 면에서 유대교에서 벗어나 유대교와 적대하는 방식으로 주석을 전개해 나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교적인 주석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 유사성을 파고 들면 파고들수록 심오한 차원에서 둘의 연관이 드러나며 상호 간의 무지와 오해가 얼마나 커다란 비극을 낳는지를 깨닫게 된다. 신약성서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예수 전기'(biography of Jesus 혹은 1세기 그리스도교 교회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어렵게 하는, 심지어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다. 교회 전통이 언제나 주장했고 현대 신약성서 연구가 재차 확인했듯 신약성서에 포함된 27권의 책들은 그 책이 다루는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쓰이지 않았다. 이 책들은 책에 나오는 사건 전반에 걸쳐 자신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증언하기 위해 쓰였다.

야로슬라프 펠리칸 '성서, 역사와 만나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첫째로,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의 개념 혹은 정의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규범이다. 즉 'canon'이다. 성경은 유일한 법칙이며 규칙이며 진리이다. 따라서 성경은 기독교의 기초이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단순히 거룩한 책이 아니다. 성서가 아니다. 경전으로서 성경이다. 하나의 'story'가 아니다. 이야기가 아니다.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이며 규범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게 사실이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다. 깨닫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이다. 권기호 '성경의 종막'

## 신간

##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에는 방해자가 많다. 이들은 공공연히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여러 형태로 위장하여 우리를 공략한다. 때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과 경험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믿음에 도전하고 그것을 폄하하는 지적인 사상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민감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상처받기도 쉽게 다른 사람들은 잘 대처하는 경험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25년 넘게 조직신학 교수를 지낸 저자 로버트 A. 피터슨 박사는 신학교는 물론 주일학교에서 구원의 확신에 관해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이 여러 이유로 자신의 구원의 확실성을 깨닫지 못하고 미지근하고 혼란스러운 신앙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우려로 집필한 본 도서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의심하게 하여 신앙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그 허약한 믿음과 불안을 바로잡

고 치유해 줄 확실한 성경적 증거를 제시해 준다.

저자는 책 속에서 "나는 독자들이 확신과 관련하여 결론을 끌어낼 만한 관련 주제들을 일부 찾았다. 이 교리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의 진실함에 기초한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 언급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그런 다음, 디모데전서 1장 18-19절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확인해 준다. 신앙은 확실한 것이며, 그것이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인식보다 더 확실하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분을 보내신 분을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상으로 베푸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이 선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딤후 1:18-19)"고 했다.

그러면서 "요한은 신앙을 버린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고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공격받고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

(요일 4:1-6)과 그리스도인의 삶(요일 1:8-10)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퍼뜨리고 있었다. 설득에 실패한 거짓 교사들은 요한의 독자들을 거부하고 떠나 버렸다(요일 2:18-19). 거짓 교사들이 떠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은 그의 독자들이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서 들은 믿음을 계속 지켰다고 칭찬한다. 그는 거짓 교사들에게 버림받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 그는 교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에게 영감이 있다는 확신을 얻기 원했다. 요한의 독자들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동행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굳건히 한다. 요한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기 원했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그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대목에서 영생의 증거가 들어온다.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으로, 성령의 내적 증거로, 우리 삶의 변화로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여기 요한일서에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세 번째 방법을 강조한다. 요한은 그의 독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신을 얻기 원한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사실을 믿는다(요일 5:1). 서로 사랑한다(요일 3:14). 죄가 아니라 거룩함이 그들의 삶의 기본 특징이다(요일 5:18-19). 이들의 변화된 삶과 변화되고 있는 삶이 영생의 증거"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 “예쁘다”고 하면 예뻐진다”... 나태주의 행복수업

“예쁨의 본질은 ‘나의 예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에 있는 거지. 너를 예쁘게 보려고 애쓰는 나. 그래서 억지로 힘을 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습니다. 예쁘다고 하면

예뻐지는 거니까.” 책 '나태주의 행복수업(열림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매주 월요일, 서울 사람 김지수가 공주의 풀꽃문학관을 찾아

가 써 내려간 여행기이자 행복 수업의 결과물이다.

“풀꽃시인 나태주와 김지수가 세대를 초월해 맺은 우정의 기록이기도 하다.

책은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는 말아야 하지만, 억지로라도 행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수지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강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었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제가 잃어버린 책입니다. 박옥렬 목사 (양원내산교회)

# 매일묵상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1)

벤전 2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2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23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맞보았으면 그리하라

24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물이신 예수께 나아가

2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26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 하리라 하였으니

27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28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를 할 때, 오래되고 쓸데없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게 이사할 때 중요한 점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다니면 집만 될 뿐입니다. 이사할 때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집에서 새집으로 이사하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런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할 옛 사람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버리고 가야 할 나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멋지게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데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반드시 이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모든 악독, 마음에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쌓아 두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보복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못 박고 청산하고 새물결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

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거짓 없이 투명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못해 눈치나 살피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고 뒤로 수군수군해서는 안 됩니다. 음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면에서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2절입니다.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서 항상 갓난아기를 같아야 합니다. 갓난아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엄마와 엄마의 젖에 대해 절대적입니다. 이것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갓난아기를 같이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육해야 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사모함이 참으로 중요 합니다. 그런데 사모함은 언제 오냐면 마음이 가난할 때 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사모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말씀 듣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다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강박해지고 메마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신앙에서 가장 멀리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힘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언제 가난해집니까? 겸손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볼 때입니다. 참으로 내가 질그릇과 같은 자임을 아는 데서 옵니다. 믿음의 선배들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는 인식이 항상 있었습니 다. 나는 질그릇과 같이 보잘 것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은 한낱 먼지와 같습니 다. 하나님의 콧바람에 날아가듯 부질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계속> 생명의 삶 제공

## 바이블지식IN

#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특히 당신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이다" (시편 37:7).

만일 당신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항상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143:8), 그리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시편 25: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된 방법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16). 만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설이도 궁극 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미 삶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안내서, 즉 성경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여호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7).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9).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시므로, 성경에 모순되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지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지 않으실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알기 위해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행통하리라" (여호수아 1:8).

크리스천은 또한 어떤 것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하시는 성경을 소유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너희를 모든 진

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13). 때때로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양심을 뒤흔들거나,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격려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뚜렷한 방법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성령이 항상 돕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사야 58:11).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부르시면, 하나님의 임재로 격려를 받으십시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

아 1:9"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주신 것과 관련 없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위험한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는 경험에 의해 주도되는 기독교의 만트라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네" 것이 종종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 하시는" 것과 모순되고, 한 사람의 체험

이 다른 사람들의 체험보다 우선될 것을 추구하다 보니 교회들이 연이어 분열되면서, 이러한 성경 외 계시들은 극심한 분열을 초래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혼돈을 일으키며, 믿는 자들 가운데 불화의 씨를 심기 좋아하는 사탄 이의 그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던 것을 보았던 변화 산에서의 가짜적인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에 의존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주장했습니다(베드로후서 1:18-19). 갯켄스천스 제공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광동침향환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독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청향의 정수  
침향추출에센스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

침향 16%

SAT 녹용 10%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 선착순 500명 한정!}

\*중량용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화사의 진향 정성, 광동 쌍화진 30회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솔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 송태훈 칼럼 가정의 달, 리브가를 생각한다

##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야곱의 어머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원상 '노곤' 또는 '압소'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녀가 노곤처럼 강직하여 결단력있고, 압소처럼 부지런하며 풍만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압소라는 이름(또는 별명)을 갖는 것은 여성으로서 최고의 작위요, 영예에 해당했다.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는 밀가가 나홀(아브라함의 형제)에게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로 아브라함의 친조카였다. 그녀는 결혼하기 전까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성에서 아버지 브두엘, 오빠 라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그녀의 집안은 나홀성의 성주였고, 큰 부자였으며, 귀족이었다. 리브가는 나홀성의 사람들이 귀하

게 여기는 공주요, 귀족 가문의 수려한 여인으로 대접받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자, 참신한 며느리를 찾기로 결정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며느리를 만날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을 이어 여호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히브리인의 제2대 족장 이삭의 아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딸이어야 했다. 능력과 미모와 경력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우선 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이었다. 참된 믿음을 마음 속에 지닐 때, 뛰어난 능력 및 준비된 경력과 미모가 역동적으로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신자가 지닌 빼어난 미모와 뛰어난 능력은 세상을 더럽히는 악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에는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였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 하나

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홀성으로 그의 종을 파견했다.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지니고 떠난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다. 그는 평생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여호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일구는 신실한 인물이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인과 여호와 공동체를 위해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친 신실한 청지기였다. 아브라함의 곁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늙은 종 엘리에셀을 선택해 중대한 사명을 맡긴 것은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에서 비롯됐다. 이삭의 결혼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여호와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 환도뼈 맹세를 시킨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환도뼈는 사람들의 생식기와 관련해 특별한 뜻이 주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손을 환도뼈 옆에 놓고 맹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사건임을 암시했다. 환도뼈 맹세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 환도뼈 맹세를 주도한 아브라

함에게 있어 제2대 족장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당시 고대 사회 전통대로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이삭의 아내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우물가에 나온 처녀에게 음료를 요청하면, 당사자 엘리에셀 뿐만 아니라 그가 몰고 간 짐승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 여인이어야 아내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여인은 하나님 주신 넓은 마음과 지혜를 충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렇게 응답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브두엘의 딸 리브가가 나홀성 우물가로 나왔고, 그녀에게서 하나님의 표적을 발견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자신 뿐만 아니라, 그가 몰고 간 약대에게도 물을 먹

었다. 엘리에셀은 그녀의 가족을 즉시 만나 결혼을 승낙받았고,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이 있는 가나안으로 복귀했다. 리브가는 그녀의 이름처럼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하나님의 딸이었다. 자신의 결혼에 대한 가족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웅변으로 극복하고 이삭과의 결혼을 성사시킨 결단력을 보여줬다.

가나안으로 시집온 리브가는 20년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히브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종손 집안의 며느리로서 걱정이 됐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했다. 시어머니 사라처럼 몸종을 남편의 첩으로 주는 실수는 하지 않았다. 2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드디어 그녀의 태를 열고 쌍둥이를 허락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와 에돔 족속을 리드할 두 아들을 선물로 받았다. 20년 동안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흘린 눈물을 상쇄하고도 남을만한 복을 얻었다. 리브가는 들사람 같은 예서 보다는 조용하고 가정적인 아픔을 더욱

사랑했다.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야성적인 예서를 히브리인 공동체의 제2대 족장으로 삼으려 하자, 거짓말 작전을 세웠다. 염소의 고기와 털을 사용해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감쪽같이 속였다. 염소의 털을 야곱의 팔뚝에 감아서 예서인 것처럼 이삭을 속였던 것이다. 야곱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족장이 되는 것은 그들의 뜻대로 성취됐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그들의 거짓말은 평생 모자를 괴롭혔다. 리브가는 갑자기 자신의 품을 떠난 아들을 애통하게 죽을 때까지 만날 수 없었고, 야곱은 외가가 있는 밧단아람에서 비참한 머슴생활을 하게 됐다.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과의 거짓말 경쟁은 야곱이 도주할 때까지도 끝나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거짓 작전을 세우지 않아도 반드시 이뤄짐을 몰랐다. 리브가는 목적을 위해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여인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 무엇을 남길 것인가(1)

### 권혁승 박사의

### 날마다 말씀따라 새롭게(62)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그들 향하여 이를 갈게할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 7:54-

60)

어떻게 살 것인가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와 관련된다. 남길 것에 대한 관심은 곧 삶의 의미 방향이다. 달란트 비유에 소개된 착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하여 인생 결산서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기대이면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마지막 예물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인가 남길 것이 있는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이다.

스테반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크고 위대한 것을 남긴 인물이다.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크게 부흥하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고, 그것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심히 다툰 것이다(행 6:1).

헬라파 유대인은 해외 출신 유대인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 이스라엘 출

신 유대인을 가리킨다. '구제'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구제' '봉사'라는 넓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음식을 차려 접대함"이라는 구체적인 것을 지칭한다. 더구나 '매일'이라는 수식어가 있어 그 점이 분명하다. 같은 단어를 그 다음 절에서는 '절대'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행 6:2). 히브리어 번역 신약성경에서도 '디아코니아'를 '식사' '음식'을 의미하는 '아루하'로 번역하고 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오갈 데가 없는 과부들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였던 것 같다. 그러던 중 행정 실수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식사공예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열두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구제와 같은 행정업무와 기도 및 말씀 사역을 구분하려는 뜻에서 일곱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에게는 행정 업무를 전담케 하고 자신들은 목회사역에 전념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을 극복하고 새롭게 부흥하게 되었다.

일곱 집사 중 하나로 선정된 스테반은

사도들을 도와 새로운 교회 부흥을 일으킨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었다. 그는 교회 행정을 위임받은 평신도 지도자였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할 만큼 카리스마적 능력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 스테반이 분노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것이다. 그렇게 그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역량으로 볼 때 그는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아깝게도 박해로 인하여 요절한 것이다. 어느 면에서 그의 죽음은 너무 허망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죽음 뒤에 위대한 것 세 가지를 남겨놓았다.

첫째로, 그는 영감 있는 한 편의 위대한 명설교를 남겼다. 그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서 53절이나 차지하는 긴 내용이다. 사도행전 안에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남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전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7장, 20장에는 바울의 전도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 이 두 인물은 사도행전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가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주역들이다. 그런데 이 두 인물 사이에 스테반의 설교가 들어 있다.

스테반은 베드로나 바울처럼 정규 신학교육을 받은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더욱 돋보인다.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어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의 설교는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다.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꿰뚫고 있는 그의 성경 지식은 가히 놀랍다. 더구나 스테반이 설교하였던 장소는 돌로 그를 치려고 움직인 분노한 유대인들 앞에 서였다. 살벌한 주변 분위기와 정반대로 그의 설교는 너무도 차분하게 느껴진다. 이는 그의 설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가 아니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전한 영감 있는 설교였기 때문이다. 그의 설교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찌르는 결과를 가져왔다(7:54).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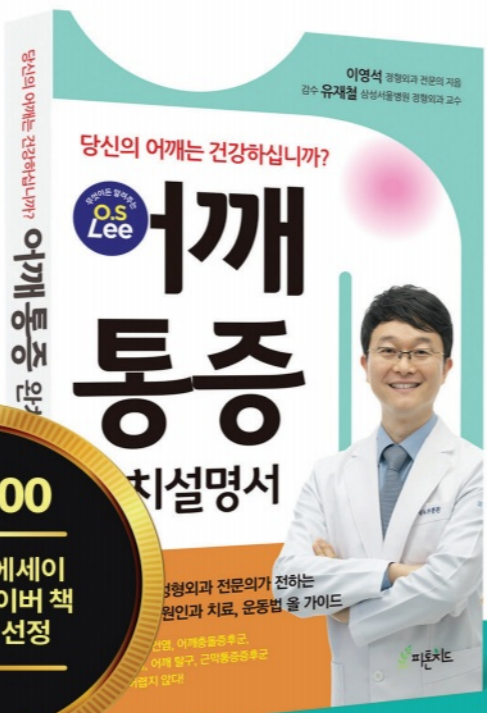
우리를 모두는 스테반처럼 위대한 설교를 남길 수 있다. 비록 설교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교를 남길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스테반 역시 말씀 사역자들을 행정적으로 돕는 평신도 지도자였다. 설교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다. 매일의 말씀 묵상도 자신을 향한 일종의 설교이다. 가정예배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역시 설교의 한 유형이다. 구역예배의 리더라면 좀 더 공식적인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설교를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말씀 중심의 유언을 가족들에게 남기는 것이다.

위대를 설교를 남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아는 것이다. 그래야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그런 성경의 해박한 지식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영감 있는 설교를 남길 수 있다.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다. 몸으로 보여주는 설교가 살아 있는 진짜 설교이기 때문이다.

권혁승 박사(전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 교회오빠 두 마음을 비우고!

### 또 하나의 비유기!

오전 예배에서 “자기를 비어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는 본체를 비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한 겸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본체(본질)를 비워야 합니다. 오전에는 선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악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

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엡2:1-5). 애석하게도 인간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불순종의 영에 매여 있었습니다.

### 거짓의 자녀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요 8:44,45). 우리의 본질은 아버지에게서 오는 데 우리의 아버지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에 둘러싸여 사는 이유는 우리가 본질상 거짓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체(본질)이니 우리는 이 본질을 비워야 합니다.

### 인간의 두 가지 동등 됨을 비우고!!!

인간은 두 가지의 극단이 맞부딪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입니다. 한 쪽이 크면 클수록 한쪽은 반대로 작습니다. 한쪽이 밝으면 한쪽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나와 동등 됨으로 취할 것이 못 됩니다. 모두 기만당하여 두 극단이 나와 동등한 실체인 양 인식할 때 불행의 싹은 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 나에게도!!!

나는 한없이 우월하여 세상을 뒤엎을 듯했지만, 그 반대로 한없이 열등감에 빠져 꼼짝을 못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나는 이가 고르지 못하다는 콤플렉스로 인해 잘 웃지를 못했습니다. 양쪽 송곳니가 났아서 웃으면 드러큐라 형상이 되었기 때문에, 난 웃기를 즐기보다 싫어했습니다. 한 번 이를 드러내고 시원하게 웃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치열을 살렸고 특히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의 차열을 살피며 질망했습니다. 이 매이는 힘은 무서워서 내 힘으로는 아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가 못 나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는 이 결점을 감추려고 독선과 오만에 빠졌고 웃는 듯했으나 울었고 겉으로는 개방적인 듯했으나 마음은 지극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주께 기도하네!!!

나는 자꾸 악조건으로 치달는 나의 형편을 바라보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나에 대한 행복이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도록 나를 맡겼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과 화목을 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밤이 지난 다음날 아침은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졌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울무와 사슬에서 풀려났음을 느꼈습니다. 아멘!

###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나는 내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비우고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의(義)로 짖 찬 모습과 자기 불의(不義)로 매인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완악함과 강박함을 인정했고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비어 할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악한 영은 그런 것들로 나를 매이고 가두어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니 그렇게 크고 강하게 보였던 어둠의 세력이 일시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허깨비였습니다. 곧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넘어져 죽을 다윗 앞에 선 골라맞았던 것입니다.

### 내 마음을 취하지 마라!

예수께서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동등 됨으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모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마음으

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마음입니다. 나를 보게 하고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가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부패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선하다 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극과 극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악과 죄만 쌓을 뿐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 감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 하리라(요8:36).”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3:17).”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5:1).” 아멘! 행복한 그리스도인 제공

### 향유욕합

## 예수 목회와 오늘의 목회

예수께서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고도 12 광주리가 남도록 나누어 주셨는데 오늘날 신학자와 목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이나, 아니냐 배부른 소리나 한다.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이들의 지옥 같은 고통을 헤아려 귀신을 내어쫓아 자유케 하셨는데 오늘날 목회자는 정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한가한 소리나 한다.

예수께서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병마의 시련을 벗겨주셨는데 오늘날 목회는 미신이나 아니냐 떠들며 성경에 있는 안수기도도 내버린다.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밥을 먹으며 회개케 하며 죄를 씻어주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있는 사람 아니고

는 다니기도 어렵고 회개도 행사 차레 죄를 덮어만 준다.

예수께서는 전도자는 전대도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 하셨는데 오늘날 전도자는 복음과 은사가 없는 줄은 모르고 예산 없다고 목회도 포기한다.

예수께서는 머리 돌 곳도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어떤 목회자는 퇴직금을 받고도 몇 십억 아파트에 매월 몇 백만원 생활비 내놓으라고 심통을 부린다.

천국 지옥을 설교하면서도 오늘 천국 가라 하면 전혀 갈 생각 없다는 형국이다.

종말론이 부귀영화론으로 교리가 바뀐 것인지? 이미 지옥 같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인 재



〈산마루서신〉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 성경상식

## 물고기 상징 (fish symbol)



### 범퍼 위의 그리스도

자동차 범퍼나 열쇠 꾸러미, 목걸이 등에 물고기 상징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물고기를 뜻하는 그리스어는 '이크투스'(ICHTHUS)인데, 초기 그리스도교도들은 이 단어가 Iesous Christos Theou Uios Soter, 즉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 구주의 앞 글자들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자동차 범퍼는 안에 JESUS라는 이름이 든 것도 있고, 그리스어 단어인 IXΘΥΣ가 쓰여 있는 것도 있다.

그리스도교도들은 고대부터 물고기를 신앙의 상징으로 삼았다. 예수의 사도들 중, 네 명은 어부였다.

예수는 그들이 신도가 되면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즉 물고기 대신 영혼을 낚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들녘 출판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딤후 1:15)



조성환 목사

는 비밀이었다.

바로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구하려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그 비밀이란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자라는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 죄인 중에 괴수요, 자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자였으며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였다. 바울은 말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고, 온 맘으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였던 것이다.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들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에 예

수님을 따린 것이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별한 집회들을 통해 한 번에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려는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얻려고 한다면 받은 은혜의 바닥이 금방 드러나며 그 삶 속에서 열기와 자기주장만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늘나라의 보좌 가운데 행해지던 예배를 경험하게 된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리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라 하였더라” (사 6:5)

진정한 예배 가운데에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비취지는 은혜가 있다.

기억하는가? 예수님을 맞닥뜨리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말이다.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비취자 그 여인의 삶은 완

전히 달라졌다. 아무도 물을 길어가지 않을 때 사람들을 피해 바닥이 보이는 우물가로 가야만 했던 여인의 삶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져,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평생을 앓은뱅이로 살아가던 사람, 혈루증을 앓던 여인, 우물가의 여인, 세리의

삶을 살던 삭개오, 문둥병자 등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헤아릴 수 없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르쳐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끊임없는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한다.

### ◆ 조성환 목사

초등학교 때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윤학원 교수의 지도 아래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연주를 하고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거쳐 1986년에 도미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음대 대학원 과정(Master of Fine Arts in Vocal performance)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연주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HIU)에서 교회음악과 과장으로 17년째 재직중이며 이민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교회음악감독으로 교회음악 전반을 책임지며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 언제라도 내려올 준비를 하라



김진연

선교단을 창단해서 이끌어 온 지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어느 팀이든지 팀이 해체될 위기는 한 번씩 경험했을 것이다. 우리 선교단도 마찬가지였다.

창단해서 2년인가 3년 되던 해 어느 날이었다. 선교단에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이 겹치고 또 단원들 간에 소소한 작은 일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태에 나 또한 지쳐서 선교단을 다시 새롭게 일으킬 의욕도 크게 저하되어 있었다. 나는 문제를 안고 선교단을 아껴 주셨던 목사님을 찾아갔다. 나의 말을 들은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단원들에게 엄마로만 있지 친구로 있지 않았군요. 그리고 선교단은 선생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나는 그 말씀에 크게 한 방 맞은 것 같았다. 선교단과는 평생 뿔라야 뿔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께서 내게 준 소망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내려놓으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선교단이 제 것인 것처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고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조금 떨어져 객관적으로

로 내 모습을 보기 시작했을 때, 선교단의 일을 내 방식과 계획대로 진행하고 내 뜻과 의지대로 일이 되지 않아 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두드러진 느낌에 나는 눈물로 화개했다. 나는 그때 이후로 사역을 맡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고백한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선택해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이 이 일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단지 구인 뿐입니다. 저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을 뿐 자리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가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줄 알아야 한다. 그때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워싱턴 스토드 물론이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정하신 그 길만을 좇아가고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된다.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된다. 그 일이 복된 일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자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리더로 앞에 선다는 것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앞에 있기에 사단이 줄 수 있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누구보다 먼저 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리더는 늘 자기의 겸손함을 살피고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자신을 버우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오늘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내려놓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란다. 당신과 나 자신에게 말이다. 그 자리를 혹 떠나게 될 때 후회가 없도록, 우리의 소망은 하늘 소망이다. 그래서 아쉬울 것이 없는 감사함의 자리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 ◆ 김진연

1995년예향위십댄스 선교단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영감 있고, 수준 있는 워십댄스 작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선포해 오고 있으며 예배 안에서의 춤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몸의 언어로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배의 도구로 사역하고 있다.

## 예배 준비,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

많은 예배인도자가 팀원들 각자의 다양한 스케줄을 하나의 연습 시간으로 통합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힘 들어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팀을 인도해야 하는 예배인도자로서는 다양한 팀원들의 개인 사정을 다 봐줘서 짧은 시간에 연습을 후다닥 끝내는 일도 마음이 그다지 편

치 않다. 어디까지나 예배준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배인도자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팀원들 각자가 개인 스케줄에 방해받지 않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협의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이러한 기반이 우리 팀에 잘 준비되어 있다면 예배준비의 양(量)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

### 이 정도를 넘어서자!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력을 키우려고 하면 우선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이 필요하다. 그러한 도전은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우려면 되는 못하겠다. 생각이 들 때 조금 더 하는 양만큼 근력이 생긴다는 점을 아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스스로 느끼기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즈음에 조금 더 오버하면 그만큼의

근력이 생겨난다는 이론이다.

나는 이러한 이론을 예배팀에 적용해보기로 했다. 예배인도자가 더 완벽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마치 연습량이 오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까지 가야 한다. 실제로 예배팀과 함께 예배준비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연습을 오버하는 듯했을 때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무언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 만큼 연습할 때는 주로 이런 멘트를 날리며 연습을 끝낸다. “내일 연습까지 곡을 완벽하게 연습해서 오세 요” 이 멘트는 주일예배를 위해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을 연습하는 경우 금요일 연습 후에 던지는 멘트로는 꽤 나쁘지 않은 멘트이다. 하지만 그 멘트를 토요일 연습이 끝난 후에 하게 된다면 다음 날 예배는 결과가 뻔하다.

만약, 다음 날이 교회가 모여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 그 예배 중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롤플레이팅(Roll Playing - 일일 일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면서 예배를 기대하는 것이 오늘 연습

을 좀 덜하고 불안한 마음을 내일까지 가지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예배 분위기를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이 곧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달린 책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정도면 될 거야”라든지 “그만큼이면 충분해”라는 반응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예배인도자가 직시해야 할 한 가지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한다고 팀원들이 “지금 불평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연습을 대중한다고 ‘나중에 비판받기 시작하면 회중들은 더 이상 예배팀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다.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은 팀원들에게 결과적으로 마음에 안정을 주며, 리더에 대한 신뢰를 얻게 하고, 예배팀원들로 하여금 예배를 기대하게 만든다. 나는 앞서 예배팀이 먼저 예배를 기대할 때 하나님이 예배 중에 교회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예배인도자는 더 나은 예배, 최상의 예배를 위해서 항상 “이 정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고궁일 목사

### ◆ 고궁일 목사

영남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현재 미국 샌디에고(San Diego)에 거주하며 코워십미네스트리(koworship.com)를 통해 지역교회의 예배팀 성장을 돕고 있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 아름다운피켓·주사랑공동체, '장애 있어도 소중해요' 태아생명축제 개최

아름다운피켓(대표 서윤화)과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가 어린이 날을 맞아 최근 신촌 현대백화점 유폴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어린이날 태아생명축제 '태아도 어린이예요: 장애 있어도 소중해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신촌감리교회(임재용 목사), 부천시성서교회(김승리 목사), 은누리교회(이재훈 목사) 및 여러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준비됐다.

부스 체험 행사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했다.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아름다운피켓, 입양과 베이비박스의 역할에 대해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발달장애 인식 개선으로 다음세대교육연구소, 바른 성교육으로 카도슈카카데미 그리고 낙태의 위험성을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청년들이 직접 전하는 등 각 부스 활동이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또한 체험 부스를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팝콘, 솜사탕, 헬륨풍선, 캡슐뽑기 등 풍성한 선물도 증정됐다.

또 이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생명콘서트도 진행됐다. 장애인 합창단인 온

사랑합창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주하는 아인스바움, 뮤지컬 '루카스'의 한 장면을 공연한 광아아트미니스트리 그리고 가수 나들 등의 특별 공연이 진행됐으며,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다운중후군 작가인 정은혜 작가 가족의 '팝업북 토크쇼',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의 장애아 입양 이야기의 감동적인 토크쇼가 열렸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나와 같은 생각을 견지한 행사여서 너무 반가웠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시민은 "태아가 작지만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태아생명존중 단체 아름다운피켓은 2011년부터 태아생명존중 및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관련해 시민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오프라인 캠페인뿐 아니라 SNS 채널 및 유튜브 채널 '포리베를 운영하며 영상과 이미지 자료를 제공하며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여성을 낙태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한 어린이가 부스 체험 행사에 임하고 있다. ©아름다운피켓



정은혜 작가와 그 가족들. ©아름다운피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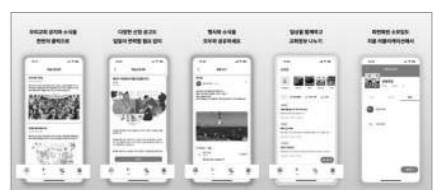
## 교회관리솔루션 '치움' 공식 출시

치움이 자사 교회관리솔루션과 연계한 우리 교회 커뮤니티 플랫폼 '치움'을 공식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치움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SaaS 기반의 교회관리, 매출관리, 재정관리와 더불어 SMS와 알림톡을 통해 마케팅 기능까지 겸비한 교회 관리 웹페이지 서비스, 교회 초대를 통해 접속해 공지와 행사,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분된다.

주목할 점은 타사의 기능과 연계해 사용해야만 하는 알림톡 발송 등을 제외한 모든 기능과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베타테스트에 참여한 한 사용자는 웹페이지로 언제 어디서든 관리가 가능한 교회 관리 서비스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으며, 특히 간편화돼 있던 교회의 다양한 활동을 모두 모아 한 번에 소통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고 꼽았다.

황원덕 치움 대표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 치움 플랫폼을 통해 목회자들이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 편리하게 교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모든 교인들이 활성화된 커뮤니티를 통해 즐겁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힘이 돼 줄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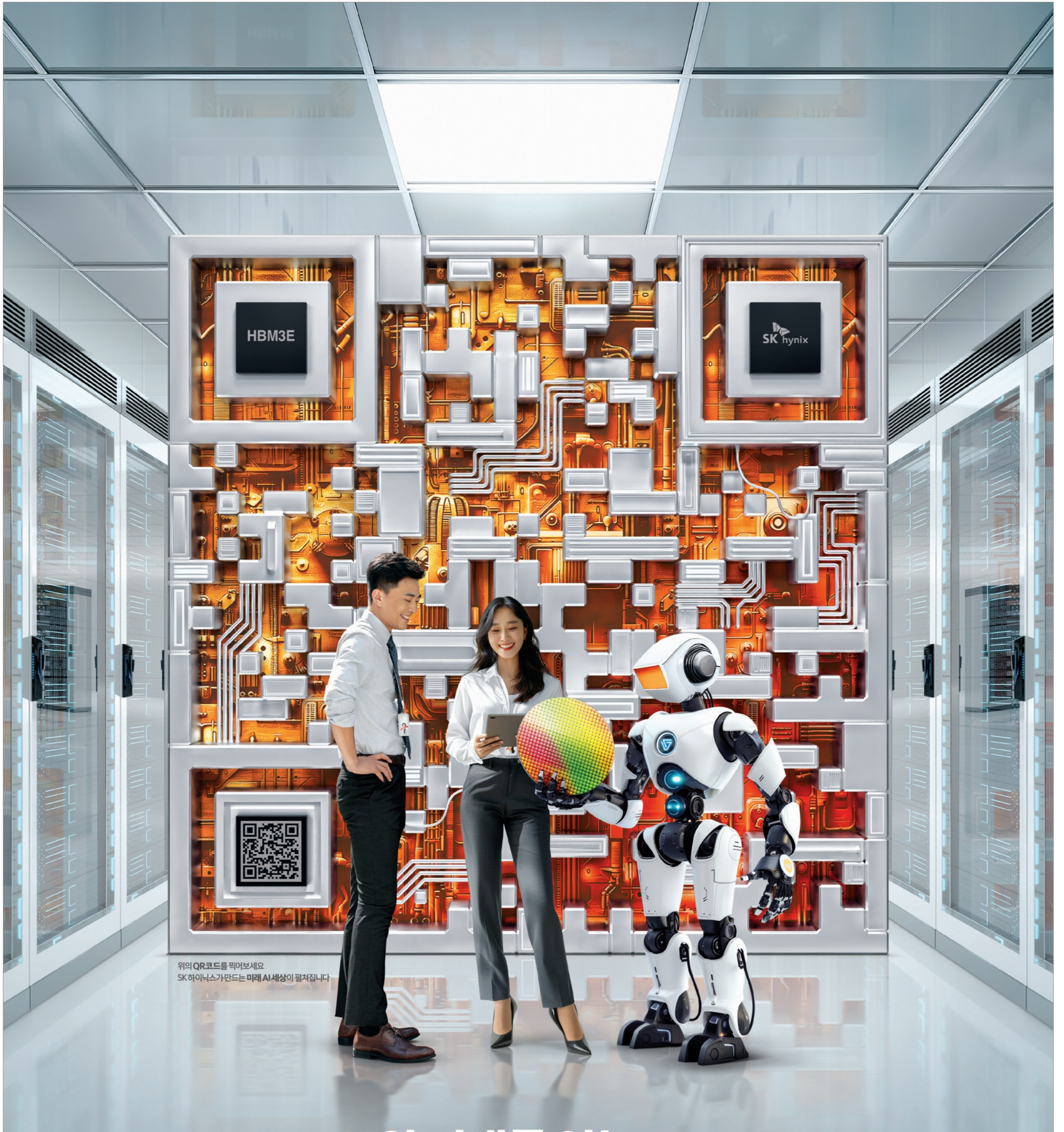
이어 "베타테스트 과정에서 SNS와 밀접한 20~30대가 아닌 40~50대 연령층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한 점이 인상 깊었다. 향후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치움은 우리 교회 커뮤니티 기반 교회 관리 윌인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SaaS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회를 관리하고, 간편화된 우리 교회의 커뮤니티를 한 곳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수가 누리는 혁신의 사각지대 있는 모두에게 혁신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내래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새벽예배 40 힐링송 50 신앙예세이	40 힐링스토리 50 생명양식 - 데일리투데이-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강단 강남성결(정인교) 30 TV강단 서울은혜(김태규)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구약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장영일 목사/이지훈 목사(대구범어교회) 30 생명의 말씀-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5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	00 생명의 양식(사상성결(김병배)) 30 주만찬 50 오늘 만나는 큐티	00 생방송 영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오직주님) 명성의 위임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권오규 목사(계산제일교회) 50 생명의 말씀-김원태 목사(수지구뿔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생터 수원순복음교회 이요한 목사 50 비전설교 대한교회 운영진 목사	30 영적성장의 도구 에너지그림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한소망 말씀 (류영모)	4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50 노변담화
8:00	20 신앙예세이 30 저판기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	00 복음강단 -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9:00	0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 50 아주 특별한 찬양	20 마커스위십 50 힐링송	00 가족의 축복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심소)2	10 새롬게하소서	00 우리함께 찬양해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10:00	40 바이블 프로젝트 50 7000마리클 - 예수사랑여기에	00 말씀의 생터 아델포이교회 임동현 목사 30 말씀의 생터 솔로몬교회 홍성익 목사	20 어메이징 그레이스	00 잘 믿고 잘 사는 법 20 목사님 궁금해요 40 CBS뉴스	00 힐링토크 회복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구약
11:00	40 Miracle Moment 50 [생방송] CTS 뉴스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생터 남사중영교회 피종진 목사	0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영적성장의 도구 에너지그림	00 울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50 말씀의 창 -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김보훈 부목사(경산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생터 전주바울교회 신현모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은누리교회)	00 TV강단 오병이어(권영구) 30 오직예수 (이영훈)	20 복음강단 -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우리함께 찬양해
13:00	00 생명의 말씀-김성근 목사(풍성교회) 30 신앙예세이 40 인생을 바꾸는 7분 - 예수가 길이다 50 Miracle Moment	00 말씀의 생터 예성교회 김기남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양준길 목사(필그림선교회)	2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	30 만나 위임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문방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00 말씀의 힘 우먼들(정준경) 30 새롬게하소서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15:00	40 7000마리클 - 예수사랑여기에	00 생방송 기록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00 [말씀] 최경옥 목사(또감사선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송양(김정곤) 30 TV강단 성남빛나는(서학복)	00 수영로교회 새물결 새바람 NEW WAVE
16:00	30 생명의 말씀-이정익 원로목사/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00 말씀의 생터 소성교회 강복열 목사 30 말씀의 생터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크리스천의 슬기로운 직장생활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김형익 목사(벤살롬교회)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 50 CBS비전특강 이름 목사의 말씀 맥으로의 초대	00 이서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17:00	00 생명의 말씀-스강석 목사(새에덴교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말씀의 생터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 30 김대성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전 부흥회	3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40 CBS 교회소식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말씀의 창 -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김대성 목사(소명중앙교회) 30 Miracle Moment 40 TV찬양예배	00 비전설교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 25 말씀의 생터 한중시라교회 서영희 목사 50 더 메시지	10 한국교회 상담사역 콘퍼런스 50 바울로부터	10 더 콜링 30 산위야의 예배 (김영준)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구약 30 말씀의 창 - 엘드교회 임병재 목사
19:00	00 2023 다니엘 기도회	00 이영훈 목사의 생령님과 함께	30 바울로부터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 30 TV강단 두란노(이상문)	00 고평격 크리스천 처트 토크쇼 : 차목 30 스페셜 (오직주님) 명성의 위임
20: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리클 30 생명의 말씀-정찬영 목사(강남중앙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어메이징 그레이스	00 성서 700 도시여행 40 잘 믿고 잘 사는 법	10 비전메시지 -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40 복음강단 - 새은혜교회 황형태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백석대학교 정중현 총장 칼럼 40 힐링스토리 50 GOODTV 뉴스	00 갈보리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홍규) 50 CBS 뉴스	10 나의 십자가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30 백세특강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바울로부터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3:00	00 더 메시지 50 신앙예세이	10 2023 다니엘기도회	00 RT. 캔달의 말씀과 성령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1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 20 오늘 만나는 큐티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우리함께 찬양해 40 리바이브 워십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구약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예배실황 광림교회 김정서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CBS 아카데미 쇼 50 살롱 살롱	00 마음으로 말해요 공감창고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3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	00 일대일 양육모임 30 스캇브래너 목사의 십자가의 영광	00 [말씀] 김은성 목사(영락교회) 4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 40 말씀의 능력(전태식)	00 말씀의 창 - 하나교회 이혁권 목사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찬양의 찬양	00 명실고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 30 명사들의 명강	20 [말씀] 이주원 목사(산마루교회)	30 TV강단 용인신성(이태희)	00 말씀의 창 - 퀸즈로교회 김성국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7000마리클 - 예수사랑여기에 50 바이블 프로젝트	00 GOODTV 특별간중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 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울포원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임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박종순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스프링하우스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	00 CBS 성서학당 (조성욱) 50 CBS 교회소식	00 우리함께 찬양해 40 힐링토크 회복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